

↑ 코스피 2612.34 (+1.65)	↑ 코스닥 745.54 (+2.03)
↑ 금리 (미국 9년) 2.610 (+0.009)	↑ 환율 (원-달러) 1449.80 (+1.90)



대내외 복합위기 돌파... '미래 먹거리·체질개선' 집중

막 오른 전자업계 주춤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전자업계의 주춤이 이번주 본격 개막한다. 올해 주춤은 단순 경영 보고를 넘어 신사업 전략과 이사회 개편 등 체질개선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 관세 리스크와 함께 후발 경쟁국들과의 기술력 격차가 축소되면서 국내 전자기업들의 대내외 경영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기 돌파를 위한 미래 먹거리 확보와 대응 방안 등의 핵심과제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일, LG디스플레이 20일, LG이노텍 24일, LG전자 25일 순으로 각각 주주총회를 연다.

삼성, 반도체 경쟁력 회복 '화두' 신규이사 등 경영진 메시지 주목

LGD, 기술경쟁력 강화 전략 발표 LG이노텍, 美 관세대응 인재 영입 LG전자, 열린주춤으로 전략 공유

삼성전자는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56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주총회는 최근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은 만큼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요 화두는 반도체 부문 경쟁력 회복방안이 될 전망이다. 그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 관련 대외적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며 주주들의 따끔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춤에서 이사회 내 반도체 전문가의 비중을 늘린다.

새 사외이사로 반도체 전문가인 이혁재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를 내정하고 사내이사로는 전영현 DS 부문장과 송재혁 DS부문 CTO 겸 반도체연구소장 선임 안전을 주춤에서 승

인받을 예정이다. 부진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을 보강하기 위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삼성전자는 주주통신문을 통해 "AI 산업 성장이 만들어 가는 미래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로봇·메드텍·차세대 반도체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신규 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의 메시지도 관심이다. 경영진들은 HBM(고대역폭메모리)의 엔비디아 공급 진행 상황과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전자는 주춤에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인공지능) 컴패니언 로봇 볼리와 갤럭시 AI 등 신기술을 전시할 계획이다.

오는 25일 주춤을 여는 LG전자는 지난해와 같이 올해도 '열린 주춤'으로 진행한다. 경영진이 총출동해 사업 전략과 비전을 투명하게 공유할 계획이다.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승인,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의 안전을 상정한다. LG전자는 LG 부회장이 권봉석 기타비상무이사 와 조주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한국과학기술원(KAIST) 경영대 교수인 류종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을 각각 이사로 재선임하는 안전도 올린다. 아울러 강성춘 교수를 신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는 안전도 상정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도 이번 주춤에서 재무제표 승인을 비롯해 정관 변경 승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LG디스플레이는 임기가 만료되는 하범중(㈜LG 경영지원부부장(CFO)을 대신해 이상우(㈜LG 경영관리부부장 겸 전자팀장)를 선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한다. 기술 전문가를 총원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LG이노텍은 이번 주춤에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기 위한 전문 인재로 김정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김 부회장이 통상 전문가로 꼽히는 만큼 증폭된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김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통상교섭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현재 LG이노텍은 지난 2014년 멕시코 산후안델리오에 3만4000㎡ 규모의 생산 시설을 마련하고 모터, 자율주행 센서, 차량용 카메라 모듈 등을 생산 중이다.

또 전장, FC-BGA 등 신사업 강화에 대한 발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尹 탄핵 선고 임박... 긴장감 도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가 경찰차로 막혀 있다. <관련기사 6면> /손진영 기자

전세도 양극화... 전세대출 증가폭 3년來 최대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 5개 광역시 등 비수도권 하락세 전세사기 우려, 월세비중도 상승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존에 매매에서만 서울과 지방의 움직임이 다르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올해 들어서는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이 격차를 벌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전세자금대출은 최근 3년來 최대치로 늘었다. 대출 규제가 주로 매매에 집중되면서 금리 인하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반영됐다.

18일 KB주택시장리뷰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했다. 지난 2023년 8월 이후 18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수도권은 아파트 전세 수요가 지속되면서 0.05% 올라 가격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비수도권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전국 전세가격을 끌어 내렸다. 5개 광역시와 기타지방이 각각 0.06%, 0.07% 하락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실수요자와 시장 침체에 따른 매매 대기 수요 등에도 아파트 전세가격까지 5개 광역시(-0.04%)와 기타지방(-0.10%)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달 0.07% 상승했다. 수도권 전세가격이 더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상승 전망으로 돌아섰다.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전세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전세자금대출은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늘면서 지난 2022년 2월(1조4000억원)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계절적으로 이사철 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다 금리 인하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가격 상승세와 전세사기 우려에 월세 거래 비중은 가파르게 상승 중이다. 올해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세가 8만1888건, 월세가 11만8789건으로 월세 비중이 59.2%에 달했다. 특히 비아파트의 월세 거래 비중은 73.7%로 전년 대비 5.1%포인트(p), 5년 평균 대비로는 21.1%p나 높아졌다.

/안상미 기자 smahn1@

한은, 내달 디지털화폐 CBDC 실거래 테스트

디지털화폐 프로젝트 '한강' 실험

한국은행이 오는 4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에 나선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 디지털화폐 관련 프로젝트 명칭을 '한강'으로 정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실거래 테스트에 돌입기로 했다. 은행들은 평소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을 활용해 자금을 거래하

고 결제하는데, 한은과 은행권은 이번 테스트에서 분산원장 기술 바탕의 CBDC로 이 과정을 대체할 수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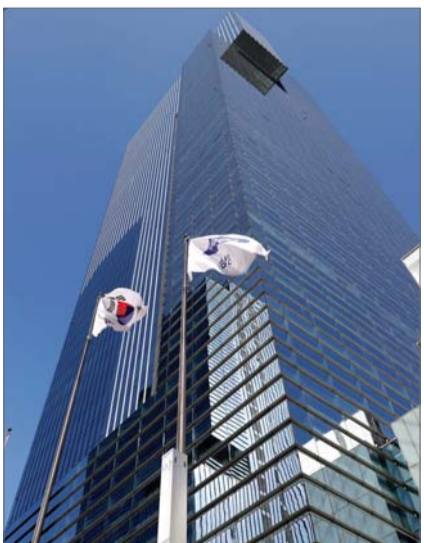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토큰(예금 토큰·tokenised commercial bank deposits)을 발행하고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한은의 실거래 실험에는 약 10만명

이 참여하게 된다. 한은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참가자들은 자신의 은행 예금을 디지털 화폐인 '예금 토큰'으로 변환해 편의점과 카페, 서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에서 결제할 때 쓸 수 있게 된다.

참여 시중은행은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등 7곳이며 10만명을 대상으로 한다.

/나유리 기자 yul15@



삼성전자 사초 사옥 모습 /뉴시스

메트로 한줄뉴스



- ▲ 국방부, 김현태 707단장 등 계엄 관여자 6명 보직해임
- ▲ 원희룡, 이재명 '윤 탄핵 신속 선고' 요구에 "이중잣대 뻥뻥" /사진 뉴시스

- ▲ 최 대통령 권한대행 "부동산 시장 우려 커져... 관계부처 필요시 대응방안 강구"
- ▲ 통일차관, 북 억류 선교사 가족 만나... "해결 노력 지속"

- ▲ 홍준표 "미국, 민감국가에 대한민국 추가, '핵개발' 보단 민주당 '친중반미'가 자극"
- ▲ 북한, 후티 때린 미국에 "불법무도...강력 규탄 배격"

LG, 세계 최고수준 추론 AI '엑사원 딥' 오픈소스 공개

美 캘리포니아 엔비디아 GTC 참가
2025 수능 수학영역 94.5점 '최고점'
과학연구·교육현장 활용 높아질 것

LG AI연구원이 글로벌 추론 인공지능(AI) 모델들과 경쟁할 '엑사원 딥(EXAONE Deep)'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엑사원 딥은 한국 기업이 자체 개발한 첫 '추론 AI'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한 셈이다.

LG AI연구원은 17일부터 21일(현지 시간)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리는 엔비디아의 연례 개발자 콘퍼런스(GTC)에 참가해 자체 개발한 추론 AI 엑사원 딥을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딥을 통한 '에이전틱(Agentic) AI' 시대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기 위해 추론하는 능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LG

동적 AI를 뜻한다. 이를 구현하려면 기존 '지식 AI'를 넘어서 '추론 AI'가 필요하다. 현재 미국의 오픈AI와 구글, 중국의 딥시크와 알리바바 등 파운데이션 모델을 보유한 소수의 기업만이 자체 추론 AI를 개발하고 있으며, 엑사원 딥은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첫 모델이다.

◆추론 문제해결 우수성 입증...수능 수학 최고점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딥'의 논리

적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다양한 성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엑사원 딥-32B'는 복잡한 수학 문제와 과학 문제 해결 능력에서 우수성을 입증했다. 엑사원 딥-32B는 한국어에 강점이 있는 엑사원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2025학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94.5점으로 최고점을 기록했다.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모두에서 1등급을 달성했다.

수학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수학(MATH)-500은 95.7점으로 알리바바 QwQ32B(95.5), 압축 증류 모델인 딥시크-R1-라마-70B(94.3)보다 앞섰다. R1은 97.3으로 가장 높았다.

또 과학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달성했다. 과학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GPQA 다이나믹 테스트에서 66.1점을 받았고, 코딩 능력을 평가하는 라이브코드 벤치도 59.5점을 기록하며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였다.

LG AI연구원은 향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물리와 화학 등 과학 연구와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엑사원 딥-32B'는 오픈소스 공개와 함께 미국의 비영리 AI 연구기관인 에포크 AI가 선정하는 주목할 만한 AI 모델 리스트에 등재되며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경량 모델 공개 "스마트폰·로봇 산업서 확산"

LG AI연구원은 '엑사원 딥-32B'와 함께 개발한 경량 모델 '엑사원 딥-7.8B', 온디바이스 모델 '엑사원 딥-2.4B'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경량 모델은 32B의 24% 크기임에도 성능을 95%까지 유지하며, 온디바이스 모델은 7.5% 규모임에도 성능이 86%에 달해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실제 경량 모델인 7.8B의 성능은 미

국 오픈AI의 o1-mini를 상회했으며 온디바이스 모델인 2.4B 또한 동급 모델과의 성능 비교 평가에서 가장 앞서가는 성능을 보였다. 특히 온디바이스 모델의 경우 외부 서버와의 연결없이 기기 내부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처리해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에서 온디바이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G AI연구원 관계자는 "2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열린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진단 및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조만간 딥시크 R1급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한다고 예고한 후 한 달여 만에 엑사원 딥을 발표한 것"이라며 "LG의 AI 기술의 핵심은 모델 크기를 크게 줄이면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스마트팜·헬스케어 등 성장동력 찾아 사업구조 다변화

라면업계 '신성장동력' 박차

농심 정관에 '스마트팜' 추가 계획
컨테이너형 스마트팜 수출 본격화

삼양식품 헬스케어 '잭앤필스' 론칭
헬스바이옴과 'HB05P' 판권 확보

오뚜기 영문상호 'OTOKI'로 변경
美 현지공장 추진, BTS 진 모델 발탁



농심 신라면 차량이 미국 시내를 누비고 있다. /농심

국내 라면업계가 기존 라면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신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스마트팜, 헬스케어, 소스 사업을 새로운 핵심 축으로 삼아 내수 침체와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농심은 스마트팜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섰다. 오는 2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에 '스마트팜업'을 추가하며 이를 공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심은 2018년 사내 스타트업팀을 구성해 특수작물 연구 및 스마트팜 기술을 개발해

왔으며, 2022년 오만에 컨테이너형 스마트팜을 수출한 바 있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협력하며 중동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농심의 스마트팜은 온도와 습도, CO₂, 광량, 양액 등 식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 모두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의해 자동으로 관리된다. 또한, 수경재배 방식으로 물에 비료를 섞어 영양공급을 함으로써 토양의 불순물로 인한 오염 가능성도 원천 차

단해 농산물의 안전성과 경작의 안정성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작물을 재배하는 선반과 베드부터 인공광, 공조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직접 자체 개발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재배기술을 모두 탑재한 '농심형 수직농장 통합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농심만의 대표적인 장점이다. 재배하는 작물의 특성에 맞춰 모든 조건을 최적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심의 스마트팜 사업 확대는 단순

식품 제조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식량 공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삼양식품은 헬스케어 사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식물성 헬스케어 브랜드 '잭앤필스'를 론칭하며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음료, 간편식을 출시했다. 이후 공식 온라인몰을 개설하고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헬스바이옴'과 계약을 맺고 근력개선 건강기능식품 소재 'HB05P'에 대한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품 판매에 나설 방침이다.

오뚜기는 글로벌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오뚜기의 해외 매출 비중은 10%로, 삼양식품(77%)이나 농심(38%)에 비해 낮은 편이다. 해외 매출 비중이 낮은 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26일 정기주총에서 영문 상호를 기존 'OTTOGI'에서 'OTOKI'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미국 현지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방탄소년단(BTS)

진을 '진라면' 글로벌 모델로 발탁했다. 진의 초상이 삽입된 패키지 제품을 수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라면업계는 또 다른 성장 축으로 소스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소스 시장은 2023년 87조원 규모에서 2028년 102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라면업체들은 요리용 소스 개발을 강화하며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삼양식품은 2017년 '불닭소스'를 한정판으로 출시했다가 2018년 정식 판매를 시작한 이후, 까르보불닭소스, 핵불닭소스, 불닭마요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다. 현재 미국, 중국 등 40여 개국에서 판매 중이다. 농심 역시 '짜파게티'와 '배홍동' 소스를 출시했으며, 팔도는 '틈새라면'의 매운맛을 담은 '틈새소스'를 선보이며 소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포화와 인구 감소로 인한 내수 침체 속에서 스마트팜, 헬스케어, 소스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라면 제품에만 의존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정체와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확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메타, AI 훈련용 칩 생산... 엔비디아 의존 줄인다

TSMC와 협력 'MTIA' 시험생산
기존 AI 보다 전력효율 3배 향상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주문형 반도체(ASIC) 개발에 나서면서, 메타도 인공지능(AI) ASI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SIC은 학습, 추론 등 특정 기능에 특화된 '맞춤형 칩'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보다 처리 속도는 떨어지지만, 가격과 전력 소모가 낮아 생성형 AI 데이터센터에서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다.

18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메타는 대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 TSMC와 협력해 AI 훈련용 반도체 '메타 훈련 및 추론 가속기(MTIA)'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 MTIA는 AI 연산 전용으로 설계된 메타의 ASIC로, TSMC의 5나노미터(nm) 공정을 적용해 800MHz 작동 속도와 102TOPS(초당 1조 연산) 성능을 갖췄다. 특히 기존 AI 추론 작업 대비 전력 효율이 3배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메타는 올해 말까지 최대 1190억달러

(약 172조원)를 AI 인프라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며, 이 중 650억달러(약 94조원)를 AI 관련 설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행보는 결국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AI 개발 비용을 절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의 GPU인 H100 한 대 가격이 약 3만~4만 달러에 달하는 점을 고려해 업계에서는 MTIA 도입으로 연간 약 2억8000만달러(약 4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메타는 2025년부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추천 시스템에 MTIA를 본격

적용하고, 2026년에는 생성형 AI 모델 훈련까지 활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데이터센터 전용 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4월 생성형 AI 모델 '제미니'를 훈련을 위해 텐서처리장치(TPU) 'v5p'를 출시했으며, AWS는 AI 학습용 '트레이니움2(HBM3E)'를 도입하고 차세대 ASIC '트레이니움3'을 개발 중이다. MS는 2023년 말 AI 학습·추론을 위한 자체 AI 칩 '마이야 100'을 공개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ASIC 기반 AI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전자는 AI 추론에 최적화된 '마하1'을 개발 중이며, AI 추론에 최적화된 저전력 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또 삼성은 실리콘밸리에 범용 인공지능(AGI) 연구소를 설립하고 150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관련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AI 연산이 가능한 메모리 반도체(PIM) 연구를 진행 중이며, 2026년 HBM4 기반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AI 가속기에 필수적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SK하이닉스는 브로드컴의 요청을 받아 범용 HBM4 시제품을 개발 중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학습지마저 끊었다... 불안한 일상에 번 만큼 못 써

- 글 쓰는 순서 -

1. '피크 코리아' 그림자 드리운 韓 경제
2. 경제는 심리... 모든 경제주체 위축
3. 경제 이글 기업들 "앞이 안 보인다"
4. 소비시장 주체 가계 "쓸 돈이 없다"
5. 리더십 없는 정부 "백약이 안 통해"

서울 서초구에 사는 정 모씨(50세)는 6년 전부터 계획했던 '새차 구입'을 포기했다. 적금으로 모아둔 4500만원 가량이 있었지만 차를 바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그는 "요즘 한 치 앞을 모르겠으니, 유동성을 좀 갖고 있는게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이 모씨(38세)는 최근 4세 아이의 발레 학원을 중단하고 한글과 숫자 학습지도 끊었다. 그는 "자영업자인 남편이 힘든 것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지금 지출은 줄여야 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지갑이 굳게 닫혔다.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대한 불안감이 소비 심리를 위축시킨 결과다. 특히 가계 소비의 '최후의 보루'로 불리는 교육비마저 4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경고등을 켜다. 전문가들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불안정한 국내외 변수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 얼어붙은 소비 지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어버린 각종 소비 지표들은 여전히 봄을 맞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 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p) 추락하며, 2008년 10월(-12.6p) 이후 1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수치만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3월(18.3포인트) 후 최대 낙폭이다. /뉴시스

경기침체 우려에 소비심리 위축 탄핵·관세 등 국내외 상황 어수선 "앞으로 잘 될거란 기대하기 힘들어"

으로는 할러윈 참가가 발생했던 지난 2022년 11월(86.6) 이후 최저치다.

회복도 더딘 상태다. 지난 2월 기준 소비심리지수는 95.2로 1월(91.2)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100을 하회했다.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준선인 100 아래로 내려간 것은 소비자들이 경제에 대해 비관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한 해 소비도 지지부진했다. 소득은 늘었지만 소비지출 증가폭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며 '번 만큼 쓰지 못하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인 이상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전년보다 3.5% 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0년(-2.3%)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도 1.2%에 그쳐,

2020년(-2.8%)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전체 자동차 구입액은 전년 대비 10.4% 줄며 2021년 이후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작년 4분기에는 전년 대비 29% 급감하며, 2021년 4분기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주류와 담배 지출도 2023년 대비 3% 줄어 들며, 실질 가계지출 항목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9년(-5.9%)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올해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여신금융협회의 '2025년 1월 카드 승인실적'을 보면 올해 1월 소비 관련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 동월 대비 매출이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타격을 받았던 숙박·음식점업은 올해 1월에도 카드 매출이 12조7000억원으로 작년 동월 대비 2200억원가량(1.8%) 줄었다.

눈에 띄는 항목은 교육서비스업의 카드 매출이 전년 동월 대비 5.5% 줄어든 것이다. 교육서비스업의 카드 매출이 줄

어든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1월(12.5% 감소) 이후 4년 만이다.

◆ 가계 빚 '명종'... "지갑 열수가 없는 상황"

소비자들의 지갑이 닫힌데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빚'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규제가 심한 제1금융권을 피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면서 이자 부담은 더욱 커졌다.

고물가·고금리에 가계 부담 가중 작년 신용잔액 1927조... 역대 최대 "관세 등 국내외 변수 해결 급선무"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2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9월 말 대비 13조원 증가했다. 2002년 관련 통계를 발표한 이래 최대 규모다. 가계신용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은행권 대출 규제도 지난해 11월 제2금융권 가계 대출은 전월 대비 3

조원 이상 늘어났다.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고물가와 고금리의 이중고로 가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 전망도 불안하니 월급이 오르지거나 장사가 잘 될거란 기대를 하기도 힘들다. 지갑을 열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내외로 불안정한 정치상황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령 선포 후, 한국 증시는 급락했고 원화는 1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계속되는 탄핵 정국의 어수선했음도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 교수는 "국내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다 외부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정책 변수들이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며 "하루 빨리 어느 쪽으로든 결론이 나오면 이 불안감이 사라져야 소비 심리도 여유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월 車 수출 늘었지만... '반짝효과' 우려

내달 美 관세 예고... 성장세 관건 산업부 "산업 경쟁력 유지 노력"

트럼프발 악재로 수출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2월 자동차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올해 누적 수출액은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내달 2일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돼 있어, 이번 실적은 반짝 증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월 자동차산업은 전년 동월 대비 생산(+17.1%), 수출(+17.3%), 내수(+14.8%) 모두 두 자릿수 증가했다.

2월 수출량은 23만3000대, 수출금액 기준으로는 17.8% 증가한 60억7000만 달러를 달성, 연간 2월 실적 중 처음으로 60억달러를 돌파했다.

EU(독일 +53.1%, 네덜란드 +45.6%), 중동(이스라엘 +348%, 이라크 +25.6%) 등으로의 수출이 큰 폭 늘었고,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61.7% 대폭 증가했다.

자동차 생산량은 35만2000대를 기록, 2014년 2월(36.1만대) 이후 11년만에 2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월 월간 생산량이 35만대를 초과했다.

내수판매는 13만3000대를 기록했다. 이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올해 상반기까지 30% 감면(한도 100만원)한 것과, 지난 1월 15일 발표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조기 개편 및 집행을 추진하며 2월 전기차 판매량이 1만4000대(+298.1%)로 대폭 확대된 영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같은 지표는 반짝 증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월까지 누적 자동차 수출액은 110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자동차 부품 수출은 같은

기간 11.1% 감소한 수준이다.

수출지역 별 1~2월 수출액도 EU(+7.7%), 아시아(+25.7%), 중동(+23.6%), 아프리카(+6.2%)를 제외하고 최대 시장인 북미(-10.0%)를 비롯해 중남미(-16.0%), 기타유럽(-5.8%), 오세아니아(-9.4%)에서 감소했다. 자동차 생산량도 2월 큰 폭 증가를 보였으나, 2월까지 누적으로는 -2.5%를 기록 중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인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

코스피 거래 중단 사고... "재발방지 최선"

거래소, 시스템 오류로 7분간 장애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주식매매 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코스피시장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코스피 전 종목에 대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에 따르면 11시 37분 7초에 코스피 종목에 대한 거래소의 매매거래 체결 시스템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후 11시 44분 16초에 시스템이 복구돼 정상 작동했다.

다만 동양철관의 경우 시스템 복구 이후에도 시스템에서 호가 접수가 거부되는 오류가 지속돼 거래소는 이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시킨 뒤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거래소는 정오께 시장관리상 사유로 동양철관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가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코스피가 전 거래일(2610.69)보다 1.65포인트(0.06%) 오른 2612.34에 마감한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업무규정에 따라 10분간 호가 접수를 거쳐 단일가매매로 재개한 뒤 접속매매로 체결됐다. 호가접수 시간에는 기존 호가에 대한 정정 및 취소도 가능하다.

거래소는 이날 전산장애에 대해 "동양철관 거래체결 관련 장애 발생으로 인한 거래소 매매체결 시스템의 지연"이라며 "전산장애 원인 및 투자자 불편 사항을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스템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

필리조선소 인수로 '미국 조선업 재건' 중심에 선다



④ 한화그룹

미국이 자국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와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화그룹(한화)은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선봉에 내세워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한화오션 등 계열사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손길... 한화 준비완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의회 연설에서 "상선과 군함을 포함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부활시키겠다"며 "백악관에 새로운 조선담당 사무국을 설치하고, 조선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기 위해 특별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현재 선박 수요 대비 건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맹국인 한국을 통해 미국의 조선 경쟁력이 높이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조선업 부활 선언

특별 세제 혜택·지원책 등 발표
韓, 필리핀 등 동맹국과 협력 강화

미 해군은 지난해 기준 군함 295척만 운용하고 있지만 중국 해군은 370척이 넘는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세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국이 해상 패권을 추구하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군함 발주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전 세계 조선산업 점유율 90%를 나눠 갖고 있는 한국에게 손길을 내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화는 수주량 증가를 예상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선박에 대해 수수료와 패널티를 부과할 경우 중국에 물렸던 전세계 발주 물량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어부지리도 기대하고 있다.

한화 방산 부문 계열사 한화오션은 지난해 6월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12월 최종 인수를 완료했다. 국내 기업이 미국 조선소를 인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화오션은 약 1억달러(약 1445억원)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북미 조선 및 방산 시장에서 전략적 거점을 확보하게 됐다.

인수 당시 미국 외국인투자심사위원회(CFIUS)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 전경.

/한화

와 국방교역통제국(DDTC)의 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미국이 한화를 통해 조선업 및 방산 산업 활성화에 나서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존 펠란 미국 해군장관 지명자는 지난달 27일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한화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통해 그들의 자본과 기술을 미국에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발언하면서 한화의 입지를 재확인시켰다.

필리조선소는 중소형 상선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조선소로 현재 도크에 3년치 일감이 쌓여 있지만 인건비 등으로 인해 실적은 적자다. 필리조선소 개파(CAPA·생산능력)는 연간 1~1.5척 동시 건조가 가능한 수준으로 향후 생산 효율이 올라간다면 연간 4척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필리조선소는 미국의 주요 해군 조선소들과 가깝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는 미 해군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 해군 군수지원함 윌리 쉬라호 정비를 마치고 지난 13일 출항시켰다. 이번 MRO 작업은 거제사업장에서 6개월간 진행됐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7월 미국 함정 정비 협약(MSRA)을 체결한 후 첫 프로젝트로 윌리 쉬라호 MRO를 수주했고, 미 해군 7함대 소속 급유함 유콘호도 수주해 정비하고 있다.

이번 성공적인 MRO를 통해 한화의 기술력을 증명하는데 이어 미국 내 필리 조선소를 활용해 적극적인 사업 확장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도록 허용하는 법안까지 통과되면서 한화의 조선기술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K증권 한승환 연구원은 "미국의 함정 건조 및

MRO 역량 부족으로 한국의 조선 역량이 필요한 시점에서 한화는 미국 본토 내 위치한 필리조선소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조선소에서 함정 건조가 불가능한 '반스-톨레프스 수정법'에 위배되지 않아 수주 가능성에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동관 부회장은 "미 국방부의 지역 유지 보수 프레임워크 계획에 부응하고 MRO 사업 수행을 통해 미 함정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화오션이 보유한 기술력과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인수한 필리 조선소 등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미 해군 전력 증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화, 필리조선소 인수로 미국 시장 점유 미국 해군 함정 건조·정비 등 협력 확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발판 적극 마련

◆한화그룹 트럼프 측근 '공략'

김동관 부회장은 미국 시장 진출과 사업 확장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접촉하며 사업 입지를 다지고 있다. 김 부회장은 지난 1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캔들라이트 만찬, 스타라이트 무도회 등에 참석해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로 불리는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마이크 월츠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등을 만났다.

한국 10대 그룹 총수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건 김 부회장이 유일하다. 김 부회장은 미국의 새 정부에서 한미 양국 간 조선·방산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해 트럼프 핵심 인사들에게 직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등 주요 계열사의 사업 역량을 소개했다.

한화는 국내 재계에서 미국통으로 불리고 있고, 특히 전통적인 미 공화당 인사들과 친분이 깊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과거 민간 외교단체인 유엔한국협회 회장을 지면서 부시 가문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이런 인연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인 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장남 조지 P 부시는 지난 2023년 한화오션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미국 시장을 본격 확대하기 위한 영입이었고, 그 결과 지난해 필리조선소 인수와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2건을 수주하는 등 한화 사업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이에 오는 20일 열리는 한화오션 정기 주주총회에 조지 P 부시 사외이사의 재선임 안건을 상정하고 임기를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이어주는 핵심 인물 에드윈 풀너 미국 해리티지재단 회장의 한화 사외이사 임기를 2년 더 연장할 예정이다. 풀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행정부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현재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조선, 방산, 에너지 분야에서 미국 사업 확대를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고 신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며 "최고의 기술력과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대명소노 품에 안긴 티웨이항공... LCC시장 판도변화 '예고'

이상운 항공사업TF 총괄 임원 차기대표 거론 티웨이항공 '수익구조' 개선이 가장 큰 과제 항공업계 "에어프레미아 인수 가능성 충분"

국내 1위 호텔·리조트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티웨이항공을 인수하면서 서준혁 대명소노 회장(사진)의 새판 짜기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준혁 회장이 에어프레미아의 경영권까지 확보해 티웨이항공과 합병하면 저비용항공사(LCC) 1위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그룹은 티웨이홀딩스 지분 54.79%를 확보하며 티웨이항공 경영권을 확보했다. 대명소노그룹은 지난해 7.8월 약 1760억원을 투입해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티웨이항공 지분 26.77%를 인수하면서 2대 주주가 됐고, 지난해 소노인터내셔널을 통해 예림당과 특수관계



인들이 보유한 티웨이홀딩스 주식 5234만주(지분율 46.26%)를 25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 매매 계약(SPA)을 체결했다. 대명소노그룹은 이달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 경영권 인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티웨이항공을 품은 서준혁 회장의 다음 행보는 이사회 장악을 통한 새로운 경영자 선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명소노그룹은 9명의 사내외이사를 추천해 주중 안건으로 상정했고, 이중 이상운 소노인터내셔널 항공사업TF 총괄 임원이 신임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이상운 총괄은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에서 근무했고, 여객, 화물, 정비, 정책 등 약 20년 동안 현장 경험을 쌓았다. 서 회장은 항공업에 처음 진출한

만큼 항공업 경험이 많은 이상운 총괄을 통해 티웨이항공 경영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 5368억원, 당기순손실 607억4574만원을 기록해 2년 만에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유럽 노선에 진출하면서 신규 항공기를 도입, 부품 및 장비, 인력을 대거 확대하면서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은 542%까지 급등했다. 티웨이항공의 유럽 노선이 다른 외항사와의 경쟁이 심한 만큼 신임 대표의 경영으로 수익성 및 안정성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명소노그룹은 올해 에어프레미아 인수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LCC 1위 경쟁도 치열해질 예정이다. 티웨이항공 인수로 유럽 노선까지 갖췄면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상황에서 미주 노선 등 중·장거리 노선에 강점이 있는 에어프레미

아를 인수 후 티웨이항공과 합병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LCC 항공 1위는 제주항공으로 지난해 매출액 1조9358억원, 순이익 217억원을 기록, 에어프레미아는 지난해 매출액 4916억원, 당기순이익 59억원을 기록했다. 대명소노그룹이 에어프레미아 인수에 성공하고 티웨이항공 수익구조를 개편하게 될 경우 LCC 1위 항공사 타이틀을 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대명소노가 항공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신임대표로 선임할 가능성이 높다"며 "티웨이항공 인수과정에서도 예림당 측에서 거절했지만 결국 인수에 성공한 것처럼 에어프레미아 인수 역시 성공할 것으로 보여 LCC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차량관리가 쉬워진다 삼성화재 Car케어

※ 삼성화재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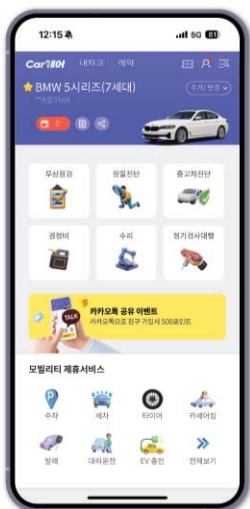
차량 점검



경정비



정기검사대행



모바일로 차량관리를 간편하게 끝내세요!

차량 점검, 수리를
간편하게 예약하고
결과까지 확인 가능

삼성화재만의
탄탄한 네트워크와
노하우
#애니카렌드(경정비)
#애니카패밀리센터(수리)

모바일로 끝내는
정기검사대행 서비스
신규 OPEN
(픽업 서비스 제공)

주차, 세차, 렌터카
제휴 서비스 제공



Car케어

삼성화재

본 서비스는 삼성화재 모바일 홈페이지와 삼성화재 다이렉트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ar케어 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해주세요. 서비스 이용 시, 데이터가 소모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일부 휴대폰 기종 및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휴서비스 혜택은 마케팅 정보수신 동의 후 이용 가능합니다. 제휴서비스 혜택은 제휴사에서 제공하며, 제휴사 사정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확인필 제25-1-0616호 (4072, '25.02.04~'26.02.03)

與野, 이달 내 추경안 편성 촉구... 연금개혁 문구 추후 논의

우원식 의장, 연금개혁 진전 기대
박형수 “여야 함께 추경안 제출” 요청
연금개혁,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연금개혁 문구 연금특위서 논의 예정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 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

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냈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군복무·출산 크레딧, 저

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제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 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

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책이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추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尹,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 주목... 과거 盧·朴 불참

현재, 선고일 통지 후 출석 여부 결정 예정
尹, 변론에 직접 출석한 첫 대통령
8차례 변론 참석, 선고일 출석 가능성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오는 20~21일쯤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8차례의 헌법재판소 변론에 모습을 드러낸 바 있어, 선고일에도 현재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참석 여부는 결정짓지 못했으며, 현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하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

령은 7차례, 박근혜 전 대통령은 16차례의 변론이 있었지만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 선고 당일도 청와대에서 결과를 지켜봤다. 대통령 탄핵심판에 피청구인이 직접 등장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3차 변론에 출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총 8번 변론에 출석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9차 변론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임에도 윤 대통령은 직접 현재에 출석했고, 법정에서 증인신문에 참여하거나 재판부를 향해 직접 입장을 내기도 했다. 또 마지막 변론이 있었던 지난달 25일에는

본인이 직접 1시간 가량 최후 변론을 한 바 있다.

일단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법원의 구속취소, 8일 석방으로 인신이 자유로운 상태다. 이때문에 현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데 제약은 없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현재에서 직접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만큼, 선고를 직접 듣기 위해 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 탄핵심판이 끝난 후 심판정 밖에서 직접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선고 당일엔 현재 인근에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이 모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고당일에는 재판부의 결정문 낭독만 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아

도 무방하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64조에도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현재 외부가 개방된 공간이라 경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선고 당일 폭력 사태 발생 우려가 있어 경찰이 ‘갑호비상’을 발령한 상황이기도 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면 치안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날, 현재 주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출석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의 선고기일 통지 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고 밝히, 선고일이 확정되면 결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예진 기자 syj@

의료인력수급추계위법 상임위 문턱 넘어

복지위,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처리
추계위, 의대 정원 심의 등 역할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8일 처리했다.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심사를 받게 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0일 본회의의 통과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및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 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이 확정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추계위를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게 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추계위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복지부·교육부 장관과 각 대학 총장이 협의해 4월30일까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는 특별 조항을 마련했다. 내년 의대 정원의 경우 입시 일정상 추계위 심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단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수용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고 회의록, 참고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급추계센터가 추계위의 추계 작업을 지원해 업무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기로 했다.

의협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입장을 펴며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준비된 대안 없이 그저 반대 의견만 표명했다”며 의협 측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박태홍 기자

“부동산 시장, 철저한 점검 신속한 대응 필요”

최상목 권한대행, 국무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대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 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모처럼 여·야가

연금 개혁에 뜻을 함께 모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모수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마지막까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떤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ANYWHERE...  ...IS POSSIBLE

당신만의 특별한 곳은 어디인가요?

ANYWHERE IS POSSIBLE



 대한항공



 KOREAN AIR

사장님 부동산대출 비대면 환승... 케이뱅크, 대환상품 출시

비대면으로 낮은금리 상품 비교
한도 조회부터 실행까지 최대 3일
담보물 연립·다세대 등 확대 예정
이달말까지 최저금리 2.93%로 ↓

앞으로 개인사업자는 365일 언제든지 비대면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 이미 부동산 담보물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후순위 상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18일 서울 명동 커뮤니티 마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찬 케이뱅크 Corporate·기업) 그룹장은 "지금까지 대다수의 소상공인(개인신용자)은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서류를 받아 은행에 방문해 제출해야 했다"며 "앞으로는 비대면으로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 신청부터 대출실행 '최대 3영업일'

케이뱅크의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은 대출 한도 조회부터 신청→심사→담보가치 평가→서류제출→대출실행까지 모든 과정이 100% 비대면이다. 빠르



김민찬 케이뱅크 Corporate 그룹장이 18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케이뱅크 부동산담보대출 미디어데이에서 '사장님 부동산담보대출' 후순위 대환대출 확대 및 향후 개인사업자 대출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면 하루에서 3영업일내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케이뱅크가 부동산 담보대출을 후순위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담보대출 선순위가 주로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대출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김 그룹장은 "지금까지 개인 명의로 받은 담보대출은 갈아타기가 가능해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지만,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 갈아탈 수 없었다"며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있거나 임

대차 계약이 있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받은 후순위 상품(개인사업자대출)이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담보물은 현재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도는 시세의 최대 85%로 10억원까지 제공한다.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케이뱅크는 상품 출시를 기념해 이달 말까지 최저금리를 2.93%로 인하하고, 대환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원금 20만원을

제공한다.

김 그룹장은 "프로모션 기간 최저금리로 제공하는 대출 비중이 50~60%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할 것"이라며 "절반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2027년 중소기업 법인대출 출시

케이뱅크는 가계부채 총량규제로 제한돼 있는 대출 공급량을 기업대출로 확대할 방침이다.

케이뱅크는 이번상품 출시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용기반의 사장님 신용대출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기반의 사장님 보증서대출 ▲담보기반의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오는 2027년 3분기에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 법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김 그룹장은 "2027년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이후에는 중소기업의 공장, 창고 등을 담보로 담보대출, 감독당국과 협의해 법인 신용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출상품 출시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대출자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지 묻는 질문에는 후순위 대환대출 상품이 대출자산을 크게 올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김 그룹장은 "이미 담보대출의 선순위에는 개인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기 때문에 후순위대출 정도가 개인에 비해 작다"며 "1억원 이상의 대출시 사업용도 점점 등도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히 증가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최우형 행장이 IPO를 마련한 자금을 사장님 담보대출 재원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IPO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재원이 충분하지 묻는 질문에는 공급량을 늘리더라도 자본의 문제는 없다고 답했다.

김 그룹장은 "올해 기업대출의 목표는 2조+알파인데, 이정도 취급할 경우 스트레스 완충점까지 고려해도 BIS비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또한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있어 그 반대로 기업대출 공급량을 늘릴 수 있어 자본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IPO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케이뱅크는 2022년과 2023년 두차례 상장을 추진했지만, 기관투자자의 수요 예측 부진 등을 이유로 철회한 바 있다. 이번 IPO 마감시한은 2026년 7월로 세번째 도전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車 적게타면 보험료 환급... 한화손보, '감축할인' 특약

업계 첫 개인용 마일리지 감축 할인
주행 10% 이상 감축땀 5% 돌려줘

주행거리 연계 자동차보험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한화손해보험이 업계 최초로 '개인용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을 선보였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보는 이달 업계 최초로 개인용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을 출시했다. 연간 주행거리가 감소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구조다. 보험가입 전 주행거리 대비 연간 주행거리를 10% 이상 감축하면 보험계약 종료 시 주행거리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5% 환급받는다. 해당 특약은 책임개시일 기준 오는 4월 11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한화손보는 "개인용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주

행거리가 감소하는 고객에게 합리적인 자동차보험료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더불어 주행거리 감소를 통한 교통정체 완화 및 공해 저감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손보의 자동차보험 사업 확장으로 그룹 내 또 다른 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과의 시너지 효과가 전망된다. 캐롯손보는 SK텔레콤, 현대차 등 여러 주주가 합작한 디지털 손해보험사로 한화손보가 지분 59.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특히 캐롯손보는 지난 2020년 출시한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는 '퍼마일(per-mile)'로 자동차보험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퍼마일은 전통적 자동차보험과 달리 월 기본료와 실제 주행거리를 기반으로 매달 보험료가 자

동 정산되는 구조다.

캐롯손보가 발표한 '캐롯 리포트 2024'에 따르면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2024년 기준 누적 가입 234만건을 기록했다. 재가입률은 9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손보와 캐롯손보의 마일리지·주행거리 연계 상품은 향후에도 성장 여력이 높을 전망이다. 양사의 상품이 서로 다른 고객층을 타겟으로 하는 만큼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울 것이라 분석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캐롯손보는 독립적인 자회사인데 판매 채널이 전혀 다르다. 캐롯손보는 사이버마케팅(CM)으로만 판매하고 한화손보는 텔레마케팅(TM), 설거사 등으로 판매한다"며 "타겟으로 하는 고객층이 서로 다르다"고 말했다.

한화손보 측은 마일리지 할인 특약

출시로 캐롯손보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판매채널이 다른 만큼 시장을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캐롯손보의 퍼마일은 내가 타는 만큼만 낸다는 실용적인 상품이고 마일리지 감축할인 특약은 ESG적인 부분이 많아 주행거리 감축을 유도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적게 타면 보험료를 적게 낸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한화손보의 특약은 직전 대비 할인해준다는 상대적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캐롯손보는 주행거리에만 특징점이 있는 상품이 아닌 (자체 개발한 IoT 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축적해온) 주행 데이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5억 차익 '광고 줍줍'에 36만명 우르르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 36.5만명 신청

경기도 수원 광고신도시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2가구 '줍줍(무순위 청약)'에 36만명이 이상이 몰려 역대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분양 당시 분양가로 공급되면서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2가구

무순위 청약에 총 36만5167명이 신청했다.

미계약 물량(전용면적 69㎡)에는 34만9071명이 몰렸다. 해당 가구는 전국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해당점 제한도 없었다. 기존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어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계약 취소 물량(전용 84㎡)에는 1만6096명이 신청했다. 수원시 거주 무주택 세대원만 청약할 수 있고 10년간 재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투시도. /현대건설

당점이 제한돼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았다.

당첨 시 약 5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

이 기대된다.

인근 '자연엔힐스테이트'(2012년 준공) 전용 84㎡가 이달 15억2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신축 프리미엄을 고려하면 17억~18억원대의 시세를 형성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번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 폭등은 최근 청약 시장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지난 4일 진행된 '복수원자이 렉스비어' 무순위 청약에서도 2가구 모집에 16만4369명이 신청했다. 세종에서 진행된 3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무려 120만명이 몰리는 등 극단적인 경쟁률이 지속되고 있다.

/전지원 기자 jiw13@

빗썸 고객 라운지 강남점서 국민銀 전용창구 운영

빗썸이 오는 24일부터 실명계좌 은행을 KB국민은행으로 변경함에 따라 빗썸라운지 강남점에서 KB국민은행 계좌 개설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빗썸라운지는 가상자산 관련 각종 상담 업무는 물론 금융 세미나 진행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빗썸의 복합 서비스 공간이다. 지난해 7월 강남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투자자 보호와 고객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빗썸라운지 강남점은 실명계좌은행 전환에 따라 KB국민은행 계좌 개설 지원을 시작한다. 또한 ▲거래소 앱 사용법 ▲거래 방법 ▲신규 가입 및 투자자 보호 상담 등 기존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빗썸은 두번째 고객 공간으로 '빗썸라운지 삼성점'을 새롭게 오픈했다. 빗썸라운지 삼성점은 강남구 대치동에 소재한 빗썸나눔센터 건물을 활용해 운영되며, 편리한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삼성점 오픈을 기념해 오는 3월 23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방문객 중 빗썸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팝콘 각' 1박스와 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 지류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빗썸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구슬 뽑기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빗썸라운지 삼성점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美 등 SMR 차세대 에너지원 주목 K기업, 글로벌 '핵심 공급자' 도전

SMR 기술 개발 등 시장 선점 나서
두산에너지·미주 주요 개발사 협업
HD현대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 박차



미국 와이오밍주 테라파워 SMR 발전소 조감도.

/두산에너지

인공지능(AI)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소형 원전(SMR)이 주목받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관련 사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원전 건설 기술과 공급망을 갖춘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SMR 시장은 지난 2022년 57억달러(약 8조 3000억원)에서 2030년 68억달러(약 9조 9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달리 300MW(메가와트) 이하의 전기 출력을 가진 원자로다.

미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10기의 SMR 발전소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밝히면서 글로벌 SMR 관련 시장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AI 분야에 5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힌 점도 전력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SMR 시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최근 확정된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SMR이 신규 발전 설비로 처음 포함되면서 국내 구축을

위한 준비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는 시장 흐름에 발맞춰 SMR 기술 개발과 공급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는 글로벌 SMR 시장에서 핵심 공급자로 자리잡기 위해 관련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뉴스케일과, 테라파워 등 미국 주요 SMR 개발사들과 협업을 확대해 원자로 모듈 및 주기기 제작 역량을 선보이며 입지를 넓히는 중이다. 현재 두산에너지는 SMR 초도호기 제작을 위한 설비 구축을 진행 중이며 지난 2024년 4월에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창원공장을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HD현대 또한 계열사들과 함께 미국 내 SMR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지난 2022년 HD한국조선해양은 테라파워에 3000만달러

를 투자하며 차세대 에너지 기술 투자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HD현대 테라파워, 서던컴퍼니, 영국의 코어파워와 함께 미국 워싱턴주 현지에서 응용원자로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교류회를 개최하며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며 상업화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SMR은 글로벌 탈탄소 흐름과 전력 수요 증가 속에서 핵심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다"라며 "다만 국가별 규제 차이가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 만큼 국제적으로 통일된 규제 기준이 속히 마련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돼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전기, AI·전장 신사업 예고

주총서 기존 경영진 유지 전망
미래 성장 전략 고도화 여부 주목



삼성전기 수원사업장 전경.

/삼성전기

삼성전기가 1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외 이사 재선임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의결한다. 기존 경영진을 유지하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올해 1월 발표한 'Mi-RAE(미래)' 신사업 전략에 따라 인공지능(AI), 전장(자동차 전자장비), 확장현실(XR)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중심으로 한 전략 구체화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기관 등 3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을 이루어냈다. 그 결과,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며 10조 2941억 원의 매출과 735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6%, 1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반도체 및 자동차 시장 변화에 맞춰 주력 제품인 MLCC와 플립칩 볼 그리드어레이(FC-BGA) 공급을 정보 기술(IT) 기기에서 AI·전장·XR 부문으로 확대했다. 장덕현 사장은 2023년 주총에서 "삼성전기는 앞으로 자동차 부품회사로 봐야 한다"고 말하며, 전장 부품 중심의 사업 재편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주총에서도 이 기조를 유지하며 미래 성장 전략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갤럭시 S25 효과와 MLCC 가동률 개선

으로 삼성전기의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2.6% 증가한 97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MLCC와 반도체 기관 부분의 호조가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기의 주요 사업 부문은 ▲컴포넌트(MLCC) ▲패키지솔루션(반도체 기관) ▲광학솔루션(카메라 모듈)로 구성된다. 컴포넌트 부문에서는 AI 서버 및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른 MLCC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패키지솔루션 부문에서는 FC-BGA 공급 확대와 베트남 공장 가동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선다. 광학솔루션 부문에서는 자율주행차 및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테슬라와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자율주행 사업에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이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장덕현 사장 외에도 김성진 경영지원실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환경 전문 변호사인 이윤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외이사 재선임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혜민 기자 hyem@

모비스, 자체 설계 차량용반도체 본격 생산

원원통합칩·램프구동 반도체 등 양산

현대모비스가 자체 설계한 차량용 반도체 양산 성공 사례를 늘리고 있다. 지난 2020년 현대오트론으로부터 반도체 사업을 인수한지 5년만이다.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탑재한 제어기와 핵심 부품 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전동화와 전장, 램프 등 핵심부품용 반도체 연구개발과 신뢰성 검증을 마치고 양산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양산하는 주요 반도체로는 전기차의 전원 제어기능을 합친 원원통합칩과 램프구동 반도체 등이다. 이미 공급 중인 배터리관리집적회로(IC)는 차세대 제품 개발에 속도를 낸다.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산업의 전

장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지난 수년간 차량용 반도체 연구개발에 매진해왔다. 글로벌 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양산 중인 차량에 많게는 3000여 개의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대모비스는 현대오트론 인수 이후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며 전력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두 분야로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연구개발 방향성을 분명히 했다.

먼저 현대모비스는 전력반도체 설계 내재화를 통해 전동화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력반도체는 전기차 주행거리와 구동능력을 향상시키는 반도체다. 현재 현대모비스는 전력반도체 여러 개를 통합하고 냉각기능을 추가해 더 큰 단위인 '파워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전력반도체·파워모듈-인버터-모터-PE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구동계의 모든 진동을 갖췄다는 방침이다. 전력반도체가 성능과 원가를 결정짓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내재화하면 차세대 구동시스템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다.

중장기 반도체 연구개발 전략에 따라 내년에는 실리콘 기반 고전력 반도체(Si-IGBT)를, 오는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차세대 배터리관리 IC와 실리콘카바이드 기반 전력반도체(SiC-MOSFET) 양산을 목표로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박철홍 반도체사업담당 전무는 "실리콘밸리 연구거점 시설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생태계를 확대 구축하고 해외 주요 기업들과의 연구개발 협력 사례를 늘릴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전동화와 전장부품용 핵심반도체 독자 개발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내달 7일 '원 UI 7' 업데이트

고도화된 '갤럭시 AI' 경험 제공

삼성전자가 원 UI(사용자 환경) 7 업데이트를 통해 갤럭시 사용자가 새롭게 디자인된 UX(사용자 경험)와 고도화된 '갤럭시 AI' 기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삼성전자는 18일 '갤럭시 S24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6·Z 플립6' 등 주요 모델을 대상으로 원 UI 7 업데이트를 다음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원 UI 7'은 심플해진 UI 디자인을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몰입도 높은 모바일 경험을 제공한다. 휴화면과 원 UI 위젯, 앱과 잠금 화면 등에

개인화 옵션을 확대 적용해 사용자가 모든 요소를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했다.

'원 UI 7'은 ▲ 글쓰기 어시스트 ▲ 오디오 지우개 ▲ 그리기 어시스트 등 한층 강력하게 진화한 '갤럭시 AI' 기능을 제공한다.

설정 또한 간편해졌다. 설정 앱에 들어가 상단 돋보기 버튼을 누르고 '눈이 피곤하다'고 텍스트로 입력하거나 말을 하면 디스플레이 설정상 '밝기 최적화' 등 알맞은 추천을 바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원 UI 7 업데이트는 한국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등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구남영 기자

삼성전자, 유럽서 AI TV 신기술 소개

유럽 테크 세미나 개최

삼성전자가 18일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2025년형 TV의 차별화된 기술과 AI TV 신기술을 소개하는 '2025 유럽 테크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테크 세미나는 2012년부터 전 세계 주요 지역에서 영상·음향 분야의 미디어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삼성 TV의 최신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행사로, 업계 관계자들이 신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

올해 테크 세미나에서는 2025년형

Neo QLED·OLED·라이프스타일 TV 뿐만 아니라 AI 기반 시청 경험 및 사운드 기술을 소개한다.

특히 구글과의 공동 개발을 통해 업계 최초로 적용한 '이클립스 오디오' 기술을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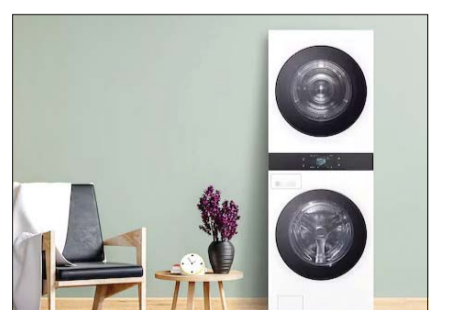
한편, 삼성전자는 유럽을 시작으로 동남아시아, 중남미 등 주요 지역에서도 테크 세미나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LG전자 '트롬 AI 워시타워' 출시

LG전자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LG 트롬 AI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LG전자는 신제품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적용해 사용은 편리해지고 옷감 손상은 줄었다.

이번 신제품은 건조 용량을 국내 최대인 25kg으로 세탁·건조 용량이 같아져 더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거



LG전자가 모터 등 핵심 부품 기술력에 더욱 정교해진 AI를 접목해 출시한 'LG 트롬 AI 워시타워' 이미지. /LG전자

울 이불 등 대용량 세탁물도 건조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중동 30년 경륜... 신재생 에너지로 '글로벌 리더' 도약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조 봉 구 코리아머신 회장

전기지게차·수소등 새 비즈니스 구상 경쟁서 살아 남기 위해선 '글로벌' 답 후진 양성위해 중동 씽크탱크 참여 키코 공대위, 기업회생협회 이끌어 '금융소비자 운동' 주도한 장본인

1994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 처음 갔으니 중동을 오간지도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났다. 사우디를 비롯해 중동 출장 횟수만 200여회가 넘는다. 그 사이 쌓인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60만 마일에 달해 최우수 회원인 '밀리언 마일러'가 됐다.

"사우디는 지금 원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경제 체질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많다. 태양광도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띈다. 수소발전소도 여러 곳에 들어서고 있다. A에서 Z까지 수소와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갖추고 있는 한국은 기회가 많다. 현지에서 30년



조봉구 코리아머신 회장이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가량 쌓아온 인맥과 신용 등을 바탕으로 수소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를 구상하고 있다."

코리아머신 조봉구 회장은 요즘 신이 났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수많은 수출 강소기업들을 나락으로 몰았던 키코(KIKO) 사태가 터진 후 그는 키코 피

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오랫동안 맡았다. 역시 키코에 망가진 자신의 회사 뿐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은 기업인들을 보듬고 선봉에 섰다. 자신의 일보다 남의 일이 우선이었다.

이후엔 한국금융소비자협회장, 한국 기업회생협회장 등을 잇따라 역임하며

금융소비자 운동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돌고 돌아 이젠 온전히 자신의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코리아머신의 전신인 코막(KOMAC)을 창업했던 97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간 것이다.

"치열한 경쟁속에서 살아남 수 있는 길은 '글로벌' 밖에 없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역시 글로벌이다. 중동과 미주, 그리고 인도차이나 지역은 우리를 먹여살릴 수 있는 든든한 시장이 될 것이다."

조 회장은 본업인 중장비와 관련 기능품 수출을 위해 현재 사우디, 인도 등에 합작을 통한 생산공장을 준비하고 있다. 올 하반기엔 이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주변 지역으로 수출하는 것이 가능할 전망이다. 리야드와 두바이엔 사무실을 두고 거점도 이미 마련해 놨다. 지난해 코리아머신은 제품의 90% 가량을 해외에 수출했다. 여기에 리빌드 굴착기, 콘크리트 펌프트럭, 휠로더, 전기지게차, 발전기 등으로 제품 라인업도 넓혀나가고 있다.

자칭 타칭 중동전문가인 조 회장은 최근엔 중동 분야 전문가들이 만든 씽크탱

크인 '좋은열쇠'에도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경영자를 육성해 현지 경영 체제 구축을 돕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 동참하게 됐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글로벌을 위해선 직접 부딪쳐야 한다. 맨땅에 헤딩하며 기업을 운영해왔던 나의 경험을 잘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 회장은 최근엔 사람에 대한 관심도 부쩍 늘었다. 동종업계 글로벌 대기업에 다니던 인재도 영입했다. 전문가 등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코리아머신은 10년 후엔 상당한 수준의 글로벌화가 돼 있을 것이다. 회사가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하기위해선 결국 글로벌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이끌어야 한다.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영에서 오픈 마인드 역시 매우 중요하다. 닫혀 있고 변화를 읽지 못하면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조 회장은 라마단이 끝나는 이달 말엔 다시 중동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화, 조선·방위산업 글로벌 확장 본격화

호주 오스탈 9.9% 지분 인수
美·호주·韓 협력 경쟁력 강화

한화가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조선 및 방위산업체 오스탈 지분 9.9%를 인수하며 주요 주주에 올랐다고 18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17일 호주증권거래소 장외거래를 통해 오스탈 지분을 직접 매수했다. 오스탈은 미군 함정을 직접 건조하는 4대 핵심 공급업체 중 하나다.

해당 지분 외에도 호주 현지 증권사를 통해 추가로 9.9% 지분에 대한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체결했다. TRS는 신용과 생산품으로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자산에 연동된 수익 손실



오스탈 서호주 헨더슨 조선소 전경. /오스탈홈페이지

만 수취하는 금융 계약이다.

이날 호주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에 오스탈에 대한 19.9% 지분 투자 관련 승인도 동시에 신청했다. 이번 투자는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각각 지분 60%와 40%를 보유

한 호주 현지법인을 통해 진행했다.

한화는 이번 오스탈 지분 인수를 통해 한국,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앞서 한화는 작년 12월 한국기업 최초로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에 나선 바 있다.

오스탈은 서호주 헨더슨과 미국 앨러바마주 모빌,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필리핀, 베트남 등에 조선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주잔고는 142억 호주달러(약 13조718억원)에 달한다. 미국 내 소형 수상함과 군수지원함 시장점유율 40~60%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알루미늄 중심 수주에서 최근 강철선 건조 체제로 전환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금호석유화학 본사 전경.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

MSCI ESG 평가 'BBB'
환경·거버넌스 개선 성과

금호석유화학이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 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의 ESG 평가에서 'BBB'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BB'에서 한 단계 상승한 것으로, 환경·사회·거버넌스 전 부문에서 점수가 올랐다.

특히 탄소 배출 감축, 유해물질 관리, 클린 테크 기회 창출 등 환경 부문에서 업계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도 대표이사외 이사회 의장 분리, 사외이사 중심 위원회 신설 등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백종훈 금호석유화학 대표는 "업황 둔화 속에서도 ESG 등급이 상승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지속가능경영을 더 강화해 기업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매출 성장률 6%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환원율 최대 40% 등 3대 목표와 성장 전략 등을 발표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2' 대형공간 성능 강화

상하 4D 입체 청정 시스템 탑재

코웨이가 청정면적을 다양화한 '노블 공기청정기2' 라인업으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18일 코웨이에 따르면 노블 공기청정기2는 조형적 디자인과 자연의 소재를 모티브로 구성된 5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2021년 첫 출시 이후 소비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대표 제품이다.

코웨이는 최근 노블 공기청정기의 프리미엄 디자인은 유지하면서 혁신적 청정 기술로 제품 크기는 줄이고 성능을 강화한 대형 청정면적의 100㎡, 133㎡ 제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기존 53㎡, 67㎡에 이어 넓은 공간도 관리 가능

한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공용·상업시설까지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넓은 청정면적의 노블 공기청정기2(100㎡, 133㎡)는 코웨이만의 필터 기술력과 청정 솔루션으로 제품 크기는 최대 35% 줄이는 동시에 넓은 청정 성능을 구현했다. 공용 시설의 공간 활용성을 고려해 대용량 공기청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크기로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은 코웨이만의 혁신적 청정 솔루션 '상하 4D 입체 청정 시스템'을 탑재해 어느 공간에서도 빈틈없는 청정력을 자랑한다.

/김승호 기자

SK일렉링크 "전기차 충전 크레딧 안심 판매"

업계 최초 전자금융업 등록

SK일렉링크가 전기차 충전업계 최초로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했다..

전국 4800여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는 SK일렉링크는 충전 크레딧 사업 운영을 위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을 등록했다고 18일 밝혔다.

머지, 티메프 사태와 같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난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이후 업계 최초 등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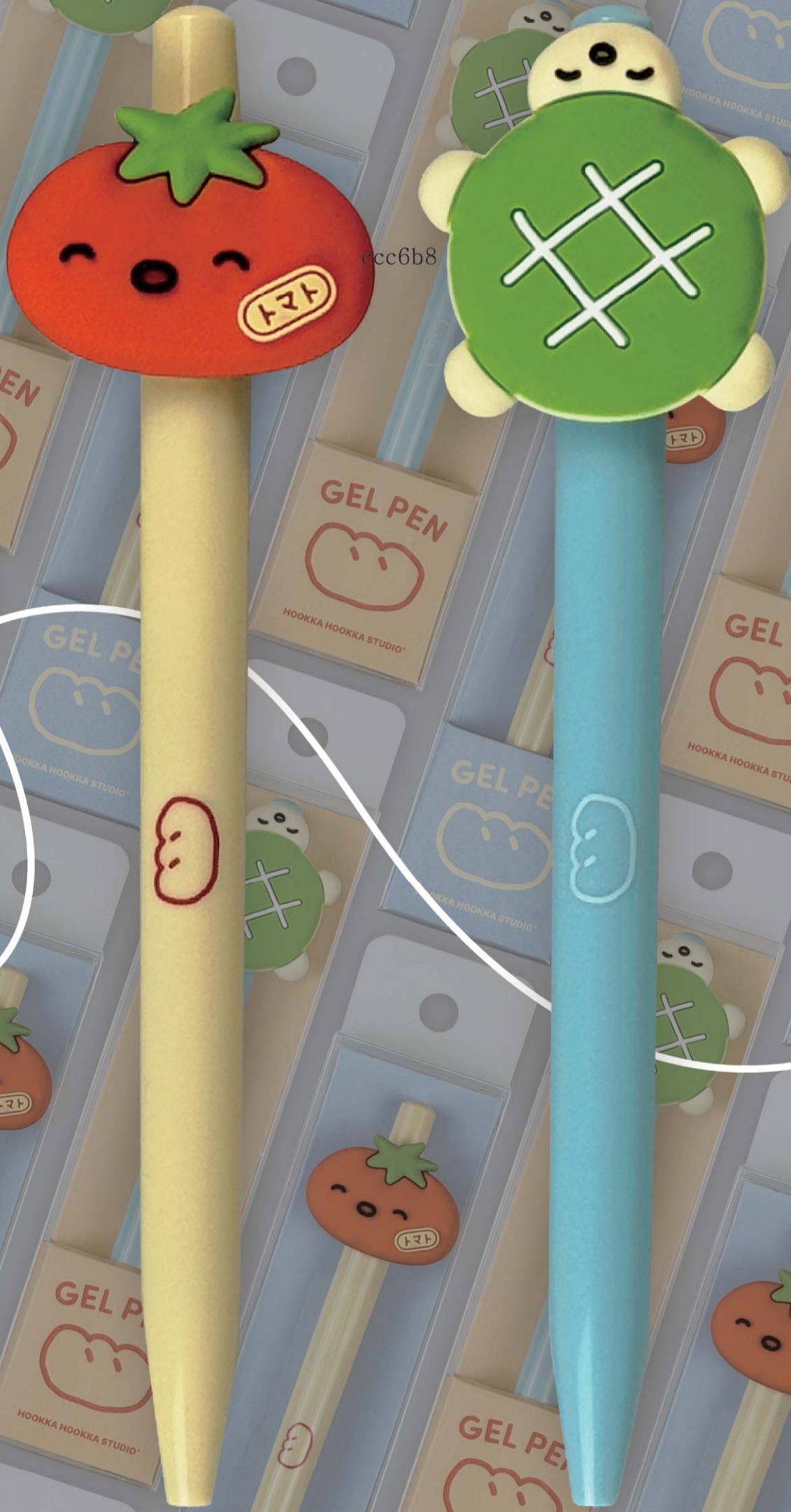
전자금융업은 회사의 재무건전성, 개인정보 보안수준, 선불 충전금의 별도 관리, 일정 규모의 전문 전산인력 및

전산설비 보유 등 금융감독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게만 허가된다. SK일렉링크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 높은 경쟁력을 증명했고 사업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환경공단의 급속 및 완속 충전시설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다.

또한 타사 충전기를 사용할 경우 SK일렉링크에 등록된 결제 수단과 크레딧으로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로밍'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PG업 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전자금융업 등록을 완료한 전기차 충전 기업은 SK일렉링크가 처음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GEL PEN



HOOKKA HOOKKA STUDIO®

후카후카스튜디오 | ふかふか スタジオ | 呼卡呼卡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후카후카스튜디오] 에서 다양한 귀여움을 만나보세요!

공식홈페이지 구경하기 ▼



인스타그램 @hookka.hookka.studio

공식 홈페이지 ddada.kr

후카후카스튜디오 ▼

中 바이두 AI, 성능평가 도구 15개 중 6개 중국어 기반

GPT 보다 나은 성능 주장 '어니4.5' 벤치마크 6개 중 4개 중국어 기반

실시간 코드 작성 평가·추론 평가 GPT와 비교해 성능 크게 뒤쳐져 평가 도구 따라 AI수준 '천차만별'

중국 빅테크 기업 바이두가 새 인공지능 모델 '어니(ERNIE) 4.5'를 발표하면서, 답시크의 'R1'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은 미국 오픈AI의 GPT-4.5를 능가한다고 주장했지만, 성능 평가에 사용한 벤치마크의 40%가 중국어 기반인 것으로 나타나 실제 GPT-4.5보다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어니 4.5는 바이두가 자체 개발한 멀티모달 기반 AI 모델이다.

18일 IT업계에 따르면 바이두는 지난 16일 어니 4.5를 출시하며, 여러 벤



치마크에서 오픈AI의 GPT-4.5보다 나은 성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바이두가 어니 4.5를 출시하며 공개한 벤치마크 자료를 보면, 성능 평가 도구 15개 중 6개가 중국어 기반이었다.

어니 4.5가 GPT-4.5보다 높은 성적을 기록한 벤치마크는 ▲중국어로 된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통해 AI 모델의 언어 이해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C-이벌(Eval)' ▲중국어로 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해 추론 등 다양한 작업의 성능을 평가하는 'CMMMLU' ▲초등학교 수준의 수학 문제로 구성된 데이터셋 'GSM8K' ▲중국어로 된 수학 문제를 통해 AI 모델의 수학·언어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C매스' ▲

단락을 읽고 이산적 추론을 통해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DROP' ▲중국어 문맥에서 대명사 해석 능력을 평가하는 'CLUUEWSC'다. 전체 6개 중 4개가 중국어 기반 벤치마크 테스트였던 것.

반면, 어니 4.5는 실시간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라이브코드벤치', 의학·법률·공학 등 전문 분야에서의 언어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MMLU-프로', 복잡하고 다양한 코딩 문제들을 평가하는 '휴먼이벌+', 복잡한 추론과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BBH' 벤치마크에서는 GPT-4.5와 비교해 성능이 크게 뒤쳐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니 4.5는 대학원 수준의 전문 지식이 필요한 질문에 답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GPQA', AI 모델의 수학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매스-500',

프로그래밍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MBPP+' 벤치마크에서 GPT-4.5에 밀렸다.

이외에 중국어로 된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차이니스 심플QA', 중국 수학 올림피아드 문제를 기반으로 AI 모델의 고급 수학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CNMO2024'에서는 GPT-4.5와 비슷한 성능을 보였다.

바이두는 어니 4.5의 벤치마크 점수 평균은 79.6점, GPT-4.5는 79.14점으로, 자사의 AI 모델 성능이 더 우수하다고 주장했다.

바이두가 이번에 공개한 벤치마크 결과는 AI 모델의 능력 수준이 성능 평가 도구로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는 'AI 브리프(2025년 3월호)'에서 "최근 개

발된 AI 모델들이 MMLU와 같은 인기 벤치마크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정확도를 달성하며 기존 벤치마크로는 모델 성능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대두되자 AI안전센터(미 AI 안전 비영리 기구)는 지난 1월 고난도 평가를 위한 'HLE(인류 최후의 시험)'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HLE는 50개국, 500개 이상의 기관 소속 교수와 연구자 등 천여명의 전문가 협업을 통해 탄생한 벤치마크다. 100개 이상의 주제를 포괄하는 2700개의 까다로운 질문으로 구성됐다.

SPRI는 "HLE를 통해 과학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AI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개발 방향이나 잠재적 위험, 필요한 정책 조치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KT, 온실가스 줄이는 '친환경 보빈' 도입

페플라스틱 활용, 10회 이상 사용 목재 사용량 줄여 산림훼손 방지

KT는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친환경 '보빈'을 도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보빈이란 케이블을 연속적으로 감는 데 사용하는 원통형 구조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목재로 제품을 만들며, 케이블 보관과 운송에 활용된다.

KT가 이번에 도입하는 친환경 보빈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한 페플라스틱(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제품이다. 10회 이상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일반 보빈 대비 가격이 비싸고 수거 작업이 어려워 산업계로 확산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KT는 LS전선·대한광통신·가온전선·머큐리광통신·이에스테크인터내셔널 등 5개 광케이블사 및 친환경



KT 직원들이 오는 4월부터 납품 받는 광케이블에 친환경 보빈을 적용하기 위해 친환경 보빈을 지게차로 옮기고 있다. /KT

보빈 공급사 간 협의를 진행해 렌탈 공급 방식으로 친환경 보빈의 가격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제품을 원활히 수거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관제 서비스를 적용했다.

친환경 보빈은 목재 사용량을 줄여

산림 훼손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약 1만2500kg 정도 감축한다. 또한 전기 사용량 2만7200kWh 절감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이는 4인 가족 기준 78가구가 한 달 동안 사용하는 전기량과 맞먹는다. 아울러 포장 폐기물이 감소하고, 보빈 폐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KT는 4월부터 납품 받는 광케이블에 친환경 보빈을 사용할 계획이다. 연간 약 2500개의 목재 보빈이 친환경 제품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KT는 친환경 보빈 사용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전체 광케이블에 적용할 계획이다.

KT는 페플라스틱 재활용 자재를 사용해 친환경 구매를 강화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실현해 광케이블 제조사와 동반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



LG유플러스 직원이 인공지능(AI) 기반의 고객관리(CRM) 시스템에서 AI가 고객 불편을 사전 탐지하는 서비스를 시연해보고 있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AI가 고객불편 사전 탐지

'고객 관계 관리 시스템' 구축 이상징후 감지엔 사전에 조치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객 서비스 불만을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하는 고객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8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도입한 AI 기반 고객 관계 관리(CRM) 시스템은 고객의 개통·AS 정보, 상담 정보, 품질 정보 등 데이터를 통합해 관리하고, AI가 고객의 잠재 불만과 불편을 선제적으로 감지하는 플랫폼이다. 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홈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 불편이나 불만을 표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줄이는 게 목표다.

기존에는 고객이 서비스센터에 직접 점검을 요청하면 홈 서비스 담당 직원이 파견돼 점검했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고객이 문제를 경험하기 전에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CRM 시스템 구축으로 이상 징후가 감지될 경우 홈 서비스 직원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 회선에 이상이 발생해 속도가 저하된 경우 고객이 미처 체감하지 못했더라도 홈 서비스 직원이 CRM이 알려주는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고객에게 연락해 서비스 이상 여부와 조치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다. /김서현 기자

'1만원대 20GB' 알뜰폰 5G요금제 출시

스마트폰 등 3곳... 상반기 중 더 나올듯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정책을 내놓은 이후 1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20GB용량의 5G 요금제가 연이어 출시되고 있다. 이미 출시됐거나 상반기 출시 예정인 요금제가 22개 가량이다.

18일 알뜰통신사업자(KMVNO)협회에 따르면 현재 1만원대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GB 5G 요금제'를 출시한 알뜰폰 사업자는 스마트·큰사람커넥트·프리텔레콤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프리텔레콤은 프로모션 요금제를 포함해 5개 요금제를 연달아 선보였다.

아이즈비전·유니컴즈·스테이지파이브·KB국민은행·에넥스텔레콤·씨케이커뮤니티 등은 상반기 안으로 1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이다. 가격대는 월 1만4000~1만9000원선이다.

이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알

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사업자들이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정에 따라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 인하됐다.

이 같은 조치로 기존 데이터 1MB당 1.29원에서 0.82원으로 낮아지고, 음성 도매대가는 소폭 낮아졌다. 특히 종량 데이터 도매대가가 처음으로 1원대 밑으로 떨어지면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협회는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회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알뜰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도매대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엔터

라이언 주인공 웹툰 '그래도 라이언' 공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가 18일 카카오프렌즈의 대표 인기 캐릭터 라이언을 주인공으로 한 웹툰 '그래도, 라이언'을 카카오페이지와 카카오톡에 공개했다.

웹툰 '그래도, 라이언'은 동등성 왕위 계승자로 태어났으나 갈기가 없어 콤플렉스인 수사자 라이언이 프로도, 네오, 튜브, 어피치, 무지, 제이지 등 카카오프렌즈 친구들을 만나기까지의 우여곡절을 그린다. 라이언 세계관을 집대성한 스토리 기반의 첫 정식 오리지널 웹툰이라고 카카오엔터는 강조했다.

카카오엔터는 웹툰 공개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오는 24일까지 '그래도, 라이언' 감상 독자들을 대상으로 캐시 뽑기권을 제공하고, 이벤트와 카카오토어터 증정 행사도 벌인다. /김현정 기자

SKT, 에이닷에 '제미나이2.0 플래시' 추가

1.5 프로 보다 주요 벤치마크 2배 빨라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에이닷(A.)'에 구글의 자체 거대언어 모델(LLM)인 제미나이 최신 모델인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추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에이닷 AI 모델의 추가로 이용자들은 SK텔레콤의 A.X와 GPT, 클로드, 퍼플렉시티, 제미나이 등 5개 글로벌 대표 AI 서비스 세부 모델들을 자유

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제미나이 2.0 플래시'는 구글이 지난 2월 공개한 최신 AI 모델로 기존 1.5 플래시를 개선한 버전이다. 응답 시간과 성능이 향상되고 주요 벤치마크에서 1.5 프로 모델보다 2배 빠른 속도를 기록했다. 이용자들은 답변과 함께 구글의 실시간 검색 결과를 제공 받고 답변이 어떤 내용을 토대로 생성됐는지 출처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도 쓸 수 있다. /김서현 기자

악재는 저가매수 타이밍?... 서학개미, 추락하는 테슬라 ‘줍줍’

연초 주가 400달러→230달러로 서학개미, 일주일간 6584억 매수 2배 추종 ETF도 3088억 사들여 월가 투자사, 목표가 잇달아 하향 서학개미 투자손실 급증 ‘주의보’

#직장인 이모(40)씨는 지난 6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식을 주당 263달러에 매수했다. 지난 1~2월에만 해도 평균 매입 단가는 370달러 정도였다. 그런데 지난 5일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물타기’(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것에 들어갔다. 이씨는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많이 내렸다. 조만간 반등할 것이란 생각에 2000만 원어치를 추가 매수했다”고 말했다.

용감함일까, 무모함일까. 테슬라 주가가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오히려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는 ‘서학개미’(해외 주식 투자자)가 있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서학



ChatGPT로 생성한 ‘주가 하락세인 테슬라에 투자하는 서학개미’의 이미지.

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테슬라로, 약 4억5449만달러(6584억원)를 사들였다. 개미들은 테슬라를 2배 추종하는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 불 2배’ ETF도 2억1320만달러(3088억원) 어치 사들였다.

연초 400달러대였던 테슬라 주가는 230달러대로 떨어졌다.

테슬라는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DOGE·도지) 책임자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합류하면서부터 주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테슬라의 주가는 이달 들어 18.76% 떨어졌으며, 이는 8주 연속 하락세다. 전날이었던 17일에도 4.79% 급락했다. 실적 우려와 브랜드 이미지 악화 등이 겹친 것으로 풀

이된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 전역에서는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테슬라 시설에서는 화재와 기물 파손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학개미들에게 테슬라의 악재는 ‘저가매수 타이밍’으로 여겨지는 모습이다.

전날에는 테슬라가 중국에서 1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FSD(Full Self-Driving)를 테슬라 차량 소유주들에게 무료 체험판으로 제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다시 약세를 보였다. 현지 경쟁력이나 수익성 우려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야후 파이낸스는 “중국에서 테슬라의 무료 FSD 제공은 현지의 라이벌을 상대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학개미사이에선 테슬라의 주가급락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가 빛나간다면 서학개미의 투자손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원한 자산운용사 임원

은 “주가가 많이 내리자 ‘돈 좀 벌어야지’며 테슬라 주주가 된 경우도 있다. 하지만 손실을 줄이려 물타기에 나선 기존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월가의 투자회사들은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미즈호 애널리스트 비제이라케시는 테슬라의 목표주가를 515달러에서 430달러로 내렸다. 분석가들은 2월 테슬라의 주요 시장인 미국, EU중국내 판매량이 시장평균보다 상당히 저조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모델Y의 개량모델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다고 말했다.

앞서 JP모건은 테슬라의 1분기 인도량 추정치를 작년 동기 실적보다 8% 감소한 35만5000대로 제시하면서 목표주가를 종전 135달러에서 120달러로 내렸다. 이는 월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현재 테슬라를 다루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370달러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예심·수익 부담... 기술특례상장 포기 잇따라

올해들어 기업 5곳 특례상장 접어 “창업 후 상당기간 적자상태 유지 바이오·헬스기업에 더욱 치명적”

기술특례 상장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층 높아진 상장 문턱 때문이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던 5개 기업이 꿈을 접었다. 이는 전체 상장예비 심사 철회 기업 7곳(스팩·이전 상장 등 제외)의 71%에 달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가 상장 규정을 강화하면서 예심 통과·수익성 등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이 발을 뺀 것으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지난달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해 코스닥 퇴출 요건을 최근 사업연도 기준 매출 3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올렸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경우에는 상장 후 5년간 매출액 요건을 면제받는다. 특례 상장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최소한 상장폐지 요건보다는 허들이 높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따른 것이다.

과두의 ‘뽕튀기 상장’ 논란 이후 상장 예비심사도 까다로워졌다.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9000억원으로 전년 3조 3000억원 대비 16.4% 증가했지만, IPO 기업 수는 82개사에서 77개사로 오히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감소했다. 예심 단계에서 철회를 선택한 코스닥 기업은 35개사(스팩·이전상장 등 제외)로, 이는 예심을 청구한 전체 기업의 34%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높아진 재무요건 허들에 불멘 소리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등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산업들이 육성된 근저에는 기술성 평가제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거래소에서 기술성평가 기업에 대한 눈높이를 매우 높게 잡고 있다”며 “최근 들어 벤처캐피탈(VC)의 자금이 기술평가기업들에 수혈되지 않고, 많은 기업들이 고사를 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약 개발 후 상당기간 동안 적

자를 유지하는 바이오·헬스기업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올해 예심을 철회한 기술특례 기업 5곳 중 3곳(엠텍스바이오·레드앤비·레메디)도 바이오기업이다.

김석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코스닥의 상장유지 조건은 바이오 헬스 회사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며 “신약 개발 회사들은 창업 후 상당기간 동안 적자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적자 상태로 상장한 회사들이 3~5년 내에 매출과 순이익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짚었다.

미국 나스닥의 경우, 매출액이나 이익이 상장조건이나 유지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주가나 시가총액이 일정액 이하로 떨어지면 상장 폐지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나스닥에는 적자 상태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상장 후에도 10년 이상 적자 상태로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김 연구원은 “코스닥의 바이오 기업, 특히 신약개발 기업의 상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 기준에 따라 상장유지를 결정하는 규정이 사라져야 한다”며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공시 기준과 감독 기능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삼성운용, 하락 리스크 관리 ‘버퍼 ETF’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 ETF’

삼성자산운용이 아시아 첫 버퍼형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한다. 미국 증시 하락장에서 손실을 줄이고 상승장에서는 일정 수준까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자산운용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KODEX 미국S&P500버퍼3월액티브’ ETF를 25일 상장한다고 밝혔다.

이 ETF는 미국 S&P500 지수에 투자하며 파생금융상품인 ‘옵션’을 활용해 1년 기간의 종료일 기점으로 약 10% 수준(미국 달러 기준)까지 하락을 완충한다.

김선화 삼성자산운용 ETF 운용팀장은 “지난 10년 동안 S&P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경우, 평균 하락률은 -7.5% 수준이었다”며 “이를 기반으로 약 10% 수준의 하락 완충 장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 상품은 S&P500 지수가 내려갈 때 손실을 줄이는 ‘버퍼’를 1년 만기의 옵션으로 구축하며,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의 옵션) 매수와 매도를 통해 버퍼를 구현한다.

풋옵션의 프리미엄(웃돈)을 지불할 때의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콜옵션(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의 옵션)을 선택해 매도하는데, 해당 콜옵션의 행사가가 ‘캡’(cap)이다.

캡은 1년 동안 S&P500 지수가 상승할 경우 버퍼형 ETF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 상승치가 된다. 즉 하락 완충 정도와 최대 상승치를 미리 정해놓게 된다.

박명제 삼성자산운용의 ETF부문장(부사장)은 “삼성자산운용은 하락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투자자들의 수요를 빠르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새로운 투자 솔루션으로 버퍼ETF를 준비해왔고 아시아 최초로 출시했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증권 ‘투자정보’ 애니메이션 공개

유튜브서 ‘투자네트’ 오픈

삼성증권은 애니메이션으로 보는 투자정보 영상 ‘투자네트’를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Samsung POP)를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네트’는 투자 경험이 적은 초보

투자자를 위해 쉽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기업과 산업을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캐릭터인 ‘서치’와 ‘앤츠’가 각 기업을 소개하고, 투자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와 실적 변동 이슈를 짚어준다. 금융 상식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

성했다. 또한 1분 내외의 스토리 텔링 형식으로 된 숏폼으로 구성돼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어렵고 복잡하기만 한 리서치 리포트가 아닌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리서치 콘텐츠”라며, “숏폼 애니메이션 ‘투자네트’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금융과 투자에 관심을 갖고 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토스증권, 미국주식 거래시간 확대

오후 5시~ 익일 오전 8시50분까지

토스증권이 애프터마켓 거래시간을 연장한다.

18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이번 연장으로 토스증권의 미국주식 거래 가능 시간은 프리마켓·정규장·애프터마켓 포함 기존 14시간에서 15시간 50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 고객이 라면 누구나 프리마켓이 시작되는 오후 5시부터 애프터마켓이 종료되는 익일 오전 8시 50분까지 편리하게 미국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서머타임 기준, 해제시 1시간씩 순연) 데이마켓이 재개될 경우 토스증권의 미국주식 거래시간은 23시간 50분으로 사실상 24시간 거래를

지원하게 된다.

토스증권 관계자는 “거래시간 확대는 장 마감 후 발표되는 미국 기업들의 실적발표나 주요 뉴스에 빠르게 대응하려는 고객들의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며 “고객들의 미국주식 투자 편의와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년 12월 해외주식 거래를 처음 선보인 토스증권은 고객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거래종목을 확대하고, 다양한 투자 방식을 소개하는 등 꾸준한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국내주식 및 해외주식, 해외채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해외주식 옵션 서비스 오픈을 예정하고 있다. /허정원 기자 zelkova@

“트럼프發 日 산업 대전환 우리기업의 새 협력 기회”

강경성 코트라 사장

日 공급망 재편, 교역 안정화 전략
산업 협력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은 18일 “일본의 첨단산업화와 공급망 재편 가속화를 우리 기업의 새로운 협력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사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회의에는 일본지역본부 4개 무역관장들이 참석했으며, 한-일간 통상·공급망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수출·투자유치 및 기업 진출 기회를 모색했다.

전 세계 4위 경제대국인 일본은 한국에게는 4대 교역국으로, 2023년 초 수출규제 해제 이후로는 775억달러 이상의 양국 교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강 사장은 무역관장들에게 “미국 신정부 발족 이후 심화되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양국 협력을 기반으로, 통상현안 해결 및 공급망 구축 강화는 물론 경제 규모 확대, 산업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낸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트라는 특히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경제안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해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나선다.

트럼프 관세정책에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불안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이 일본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일본 내 공급망 재편 가속화가 예상된다.

이에 코트라는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발굴을 위해 핵심 기술·부품 연계형 양방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을 위한 상



강경성 코트라사장이 18일 일본 오사카무역관에서 ‘일본지역 무역투자확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코트라

담회를 원자재 및 기술협력 수요 발굴을 위한 장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일본 종합상사와의 협업을 통해 수입처 다변화를 모색하고, 제3국 공동 진출 등 협업 기회도 모색한다.

일본의 산업 대전환에 대응해 소부장·소비재 수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일본은 장기 저장장에서 벗어나기 위한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 산업 대전환의 기로에 직면해 차세대 첨단 소부장 시장 공략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코트라는 일본지역 무역관별 전담 산업을 선정, 해당 무역관이 양국 수요 매칭을 리딩하는 ‘산업 특화 무역관’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별로 ▲도쿄 DX·스마트제조 ▲오사카 전력·에너지 ▲나고야 모빌리티 ▲후쿠오카는 반도체 등 유망 산업 수요를 집중 공략한다.

강 사장은 “일본과의 협력은 단순한 교역을 넘어, 공급망 구축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핵심 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대한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일본 정부의 스타트업 육성 정책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2060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립 국무총리 소속 유치 지원추진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의결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확보
부지적합성 조사·주민투표 거쳐야
유치·주변지역 폭넓은 지원 추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절차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내 고준위 방폐장 설치가 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지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부지 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에 걸친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쳐도록 했으며,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에 따르면 부지선정을 위한 공모부터 주민투표를 통해 부지를 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

정하기까지 13년이 소요된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하는 한편,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해당 지자체에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는데, 존속기한인 5년 이내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

을 검토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은 작년 말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부지로 태백시를 선정해 이미 추진중이다.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산업부는 하위법령인 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법률에서 위임된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전문가·원전지역·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대통령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관리위원회 신설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20여년 전통 ‘국제 물산업 박람회’ 개막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 주제
21일까지 고양 킨텍스서 열려



환경부와 한국상수도협회가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2025 국제물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이 행사는 국내 물기업의 우수 제품 및 기술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동시에, 물산업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2년부터 개최돼 왔다. 올해로 22회째를 맞는 국제물산업박람회의 주제는 ‘안전한 물과 우리의 세상’이다. 기후 변화와 물 위기가 일상화된 오늘날 모두가 안전한 물을 누릴 수 있도록 물산업의 시대적 책무를 되새긴다.

이번 박람회엔 585개 전시공간(부스)에 국내 물기업 210개사가 참가해 다양한 물산업 기술과 제품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스마

트 도시침수 예측 기술, 디지털 하수도 시스템 등 물분야 신기술을 다수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는 기존 상수도 위주의 전시에서 하천관리·물재해예방 관련 기술과 제품으로 구성을 확대했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분야를 지속 확대하여 물순환, 물 재이용, 해수담수화, 초순수 등 미래 유망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물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물산업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각종 토론회(세미나)가 열린다. 특히 올해 박람회 주제와 연계한 물안전 분야 특별 토론회에서는 수도 분야 물 안전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홈플러스 일별 대금지급 현황 매주 점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서
한기정 “민원 면밀 모니터링”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와 관련해 대금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현안질의에서 “공정위는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해 일별 대금지급 현황을 매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홈플러스는 현재 납품업체에 대한 대금은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1·2월에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잔여

대금도 순차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납품 업체에 대한 지급 현황 및 소비자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3일 대금지급 현황과 납품 업체 피해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관련 민원 동향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갑작스런 회생절차 개시로 납품업체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 채무 3791억원 중 87%인 3322억원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생절차 개시 이후 홈플러스가 판매한 상품권 중 10억원가량의 소비자 환불 요청이 있었고 전액 환불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상품권 환불 및 사용 관련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환불 명령 등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상 대금지급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폴리텍대-로봇산업협, 차세대 로봇기술 인력 양성 맞손

한국폴리텍대학은 18일 오후 인천 부평구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회의실에서 한국로봇산업협회와 ‘로봇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로봇 기술 인력 양성 및 취업을 위한 상호 협력 △로봇 분야 산업정보, 기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상호 교류 △기업 맞춤형 로봇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환경 조성 등에 힘을 합친다.

폴리텍대는 로봇 기술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급성장하는 로봇 산업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2021년 개교한 로봇캠퍼스는 국내 최초 로봇 특성화 대학으로 1회 졸업생 취업률은 83.3%, 유지취업률은 93.9%에 달한다. 무엇보다 졸업생 로봇 관련 업체 취업률은 86%를 상회한다.

이철수 폴리텍대 이사장은 “한국 로봇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합쳐 나갈 예정”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형 로봇 인재를 키우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대는 올해 전국 36개 캠퍼스에서 로봇·자동화계열 4590명(모집 기준)을 양성하며, 하이테크 등 직업 교육과정을 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www.sjame.co.kr

농업의 성장동력! 농업의 미래!

2025 상주농업기계박람회

2025. 3. 25.(화) ~ 3. 28.(금)

태평성대경상감영공원 일원(경북 상주시)

전시분야

자율작업, 농업로봇, AI, 스마트팜 등 스마트농기계 전시
일반 농기계·자재 전시(수도작, 밭농업, 축산, 수확 및 가공, 시설농업 등)

부대행사

학술심포지엄, 시설원예수출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밭농업기계 담당자
현장 교육, 승마로봇체험, 경품응모 등

문의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수출전시팀 : 041-411-2135~7
상주시 농업정책과: 054-537-7441~2

후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상북도, 농촌진흥청
농협경제지주,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기계학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 상기 내용은 추진 상황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최:  상주시 주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포항시, '청년 친화도시'로 도약... 일자리·주거 등 지원 강화

370억 예산 투입 5대 분야 추진
창업·취업 프로그램 등 경쟁력 강화
맞춤 주거 지원으로 독립 기반 마련
정책 참여 확대 등 지역 성장 도모

포항시가 '청년과 미래를 잇는 도시! 청년 친화 도시 포항'을 비전으로 올해 청년 정책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청년들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지원에 본격 나섰다.

시는 370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교육 ▲복지·문화 ▲주거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의 73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교육-자산-주거'로 이어지는 희망사다리 구축과 청년들의 참여와 주도를 강화해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청년 친화도시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글로벌대학 30과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발맞춰



지난해 청년리더 소통간담회에 참석한 이강덕 포항시장.

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POBATT(Pohang Battery) 프로젝트' 등 다변화하는 지역 산업 구조를 반영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청년의 눈높이에 맞춘 취·창업 지원으로 일자리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근로자 사랑채움 ▲포항형 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청년) 등 자산 형성 지원으로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청년 월세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등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 형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년 징검다리 주택 등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하며, 빈 건축물 및 빈집 혁신 대책 추진으로 청년 주거 공간 제공을 확대해 청년의 지역 정주 여건 향상을 도모한다.

시는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 정책학교와 정책 제안대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난해 청년대로(大路) 포항 프로젝트로 배출한 청년 정책활동가 지원을 강화하며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청년 행복 뉴딜 프로젝트'로 포항청춘센터 & 청년창업플랫폼을 청년에게 문화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성장을 종합적으로 돕는 '전 분야 지원 종합 거점센터'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청년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청년들의 실질적 성장과 정착을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하고 있다"며 "청년 정책이 점점 고도화되고 확대되고 있는 만큼 유관부서·지역대학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경북)=최지용 기자 asdax@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진주시

초소형위성 발사·교신 성공

진주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초소형위성 'JINJUSat-1B'가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 초기 교신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3대의 카메라를 장착한 2U 크기 큐브 위성으로, 지구 사진 촬영 임무를 3개월간 수행한다. 2019년부터 KTL, 경상국립대와 초소형위성 개발 사업을 시작, 전문 인력 양성 및 부품 국산화에 기여했다. 2023년 11월 발사한 JINJUSat-1은 사출에 실패, JINJUSat-1B를 재제작해 궤도 진입에 재도발했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양산시

봄맞이 관광 활성화 마케팅 추진

양산시가 '2026 양산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해 봄철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을 추진한다.

'2025 양산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스마트폰으로 관광지 방문 및 GPS 기반 스탬프를 모으는 방식으로, 원동대화축제, 물금 벚꽃축제 특별 이벤트, 명산 등반 완주 이벤트가 진행된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11월까지 음식점 결제 인증 이벤트도 운영한다.

시는 대만 해외 마케팅, 전국소년체전 홍보관 운영, 낙동강 봄꽃 페스타 방문 이벤트 등 관광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영덕군

과실 생산 기자재 '조기 공급'

영덕군은 관내에서 재배되는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의 주요 과수 작목의 고품질 과실 생산을 위해 저온 피해 경감제를 포함한 8종의 기자재를 조기 공급하기 위해 농가 자부담금 포함 10억여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영덕군은 과수 작과를 향상할 수 있는 수정 벌, 인공수분꽃가루를 지원하고, 이상기후 대응해선 저온 피해 경감제, 폭염 피해 경감제 등의 기자재를 공급한다. 이밖에 향후 급변하는 이상기후에 대비해 방상 팬, 미세 살수장치 등을 확대 보급해 저온·서리피해, 폭염 피해 예방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과수 농가에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영덕(경북)=손기섭 기자 gbnnews8082@

신안군

'1004굴' ASC 국제인증 취득

전남 신안군이 국내 최초로 굴 품종에 대해 ASC(세계양식책임관리협회) 국제인증을 공식 취득하게 되었다. ASC는 네덜란드에 기반을 둔 지속가능한 무역 이니셔티브(IDH)와 WWF(세계자연보호기금) 네덜란드에 의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기관으로서, 환경 보호와 사회적 책임을 기반으로 한 국제 인증 제도로,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실천하는 어장과 양식품종에 부여된다. 1004굴 ASC 국제 인증 수여식은 다가오는 03월 19일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등 20명이 참여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된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전남도, 친환경 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4대 분야 79개 사업에 1680억 투입
양식 어가 에너지 절감장비 등 보급

전라남도가 바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총 1천680억 원을 들여 스마트 김 종자 배양시설 구축 등을 포함한 4대 분야 79개 사업을 추진, 전남 수산업의 전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4대 분야는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양식어업 육성 지원, 수산자원 관리 및 생태계 조성, 어업인 안전 및 복지 실현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기반 구축 분야의 경우 747억 원을 들여 육상 양식 어가에 에너지 절감장비를 보급하고, 친환경수산물 생산 지원을 위한 인증비와 국제인증비를 지원하며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한다.

양식어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217억 원을 들여 참조기 양식 산업화 센터 건립, 고부가가치 품종 육성을 위한 종자 공급사업, 어류양식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매



전북양식장(완도 보길도) /전남도

년 발생하는 어업재해에 따른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와 재해보험료 등에 67억 원 지원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 회복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165억 원의 사업비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해삼 씨뿌림 사업과 인공어초 설치 및 유해생물 구제사업 등을 추진한다. 수산생물의 서식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바다숲 조성 면적 확대를 목표로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부산시,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

내달부터 2850대 운행

부산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 콜택시'와 '임산부 콜택시'의 운영 시스템과 협약 구조를 통합·개편한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콜택시는 2012년 도입된 비휠체어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콜택시로, 특별교통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임산부 콜택시는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2020년 시가 전국 특·시 중 처음으로 도입한 임산부 바우처 콜택시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자비콜 750대, 임산부 콜택시는 등대콜 2100대가 협약해 개별 운영 중이다.

시는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성을 향상하고 콜택시 운

영의 효율성과 최적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행 개별 시스템 구조를 하나로 통합 확대 운영한다.

오는 3월 말까지 현행 개별 시스템 구조를 통합해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영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협약택시 단체와 '교통약자 콜택시 통합 운행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약 택시는 전체 2850대로 확대된다. 장애인 콜택시는 기존 자비콜 750대에 등대콜 2100대 추가, 임산부 콜택시는 기존 등대콜 2100대에 자비콜 750대가 추가된다.

특히 배차 미수락과 지연 운행 방지 등을 위해 임산부 콜택시의 기사 콜봉사 수수료를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하게 500원을 기사에게 지급해 배차 성공률을 향상할 계획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창원시,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 시동

7월 9~11일까지 3일간 대규모 개최

창원특례시는 '제1회 방위산업의 날'과 연계해 방위사업청과 공동으로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대규모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10일 체결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 행사는 각군 국산화 개발 대상품 및 방산기업 제품 전시를 통해 국내 방산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요·공급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2010년부터 격년으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8회째를 맞이했다.

특히, 올해 2025 방위산업 부품·소재 장비대전은 제1회 방위산업의 날과 연계해 추진되는 첫 번째 행사인 만큼 서울과 창원에서 이원화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기간중 창원에서는 ▲육·공군 무기 체계 국산 부품 전시회 ▲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 ▲미래 전력 기획 심포지엄 등 기존 프로그램 등 추가로 선보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국내 유일의 중소기업 중심 행사인 만큼 효과적인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체계기업-중소기업 간 상호 소통 강화를 위한 체계 기업 참여 확대 및 부스 매칭, 참가자와 관람객 이해 증진을 위한 첨단 기술과 연계한 기술 교류에 중점을 둔 물론, 국방품질 종합 학술대회도 함께 개최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경남도, 관광 박람회로 숨은 명소 알린다

오는 20일부터 창원서 개최

경상남도는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2025 경남관광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경남관광박람회는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동 주최하고 올해 중점 육성 전시회 지원 공모에 선정된 케이앤씨가 주관하는 행사로, 도내 18개 시·군, 관광업계 등 다양한 홍보 부스 운영, B2B 상담과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경남=이도식 기자

최근 내수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상황에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도민들이 경남의 숨은 관광지를 구석구석 여행하기를 통해 도내 관광 소비 촉진과 내수 회복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이번 행사의 주요 주제이다.

18개 시·군 관광홍보관을 포함해 관광 기업 등 88개 사 246개 부스에서는 경남 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만나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K-콘텐츠·명품관 가지각색 콘셉트... 백화점 '리뉴얼' 한창

롯데 본점 영플라자 31일 영업종료 'K-콘텐츠'로 젊은 해외고객 겨냥

신세계 본점신관 2층 전면 재단장 명품 등 강화 프리미엄 고객층 확보

백화점들이 본점 리뉴얼을 통해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이 '신세계타운' 구상을 바탕으로 본점 신관 새 단장에 돌입한 가운데, 롯데백화점 역시 '롯데타운 명동' 프로젝트를 내걸고 본점 리뉴얼 경쟁에 뛰어 들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각각 각북 상권 내 본점 리모델링을 본격화하며 집객력 확보에 나섰다.

우선, 롯데백화점은 내달부터 본점 영플라자를 새롭게 단장해 선보인다. 이를 위해 영플라자는 이달 31일까지 영업을 종료하고 본격적인 매장 정리에 들어간다.

이번 본점 영플라자 리뉴얼의 핵심 콘셉트는 'K-콘텐츠'다. 명동 상권에



롯데백화점 본점 '영플라자' 전경.



신세계백화점 본점 전경. /신세계백화점

위치한 점을 고려해 젊은 해외 고객층을 겨냥한 전략이다. 패션, 아트, 식음료(F&B) 등이 결합된 한국 전문 매장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02년 미도파백화점을 인수한 뒤, 이듬해 패션 특화 매장으로 영플라자를 새롭게 개편했다. 이후 '영(Young)' 콘셉트를 유지하며 시대 변화에 맞춰 글로벌 제조·유통일괄 브랜드(SPA), 온라인 기반 패션 브랜드, 지식재산(IP) 콘텐츠 등을 지속

적으로 선보여 왔다.

이번 영플라자의 개보수 공사는 롯데백화점 본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롯데타운 명동' 조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실제로 롯데백화점은 각북 상권을 대표하는 '롯데타운 명동' 구축을 목표로 지속적인 본관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 리빙관을 새롭게 단장한 데 이어, 2021년부터는 남성 해외 패션관, 여성 패션관, 식품관, 뷰티관 등을 차례로 개편했다. 오는 하반기에는 신진 디

자이너 중심의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롯데가 해외 고객을 겨냥해 본점 리뉴얼을 추진하는 반면, 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신관을 중심으로 명품 및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를 강화하며 국내 프리미엄 고객층 확보에 나선다.

신세계백화점은 버버리, 발렌시아가 등 주요 명품 브랜드 매장을 확대하고 신관 2층을 전면 재단장할 계획이다. 또한,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입점을 확

대해 고급 주얼리 브랜드관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VIP 라운지를 전면 개편하는 동시에 추가 신설해 우수 고객을 위한 공간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두 백화점이 공간 재단장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타운' 조성 경쟁에 돌입한 양상"이라며 "특히 두 백화점 본점이 모두 서울 중구에 위치해 있어 집객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수도권 주요 백화점들이 타운 조성을 통해 확장 전략을 펼치는 것과 달리, 지방 백화점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구백화점은 최근 두나미스 자산운용에 자사주 20만 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를 통해 대구백화점이 확보한 금액은 15억 3520만원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지방 백화점들은 리뉴얼은커녕 기존 본점을 유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롯데마트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 2탄 출시

안창살·꽃갈비살·안창살 등 3종에 특제소스 더해... 내일부터 프로모션

롯데마트가 이달 20일, 최강록 일식 셰프와 협업한 구이 상품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 2탄을 단독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는 최 셰프가 직접 고른 소고기 부위에 특제 소스를 더한 구이 상품이다. 이번 2탄은 ▲나야, 안창살 ▲나야, 꽃갈비살 ▲나야, 돈테키 총 3가지 품목으로 구성됐다.

'나야, 안창살'은 매운 두반장 소스를 곁들였다. 이번 신제품은 특수 부위를 활용해 기존 소고기 상품군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나야, 돈테키'는 '최강록의 나야' 시



롯데마트와 최강록 셰프의 콜라보 상품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 2탄 상품 포스터. /롯데마트

리즈 최초 돼지고기 상품이다. 간장조림 소스를 더한 제품으로, 일본 오사카 인근 지방의 대표적인 조림 요리를 최 셰프만의 조리법으로 재해석해 기획했

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번 2탄 기획에는 강레오 롯데마트 식품혁신센터 장도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선보인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 1탄은 ▲나야, 부채살 ▲나야, 살치살 ▲나야, 토시살 등 3가지 소고기 구이류로 출시됐다. 롯데마트에 따르면, 차별화된 콘셉트와 특제 소스가 호평을 받으며 출시 3개월 만에 12만 개 이상 판매됐다.

롯데마트는 이번 2탄 출시를 기념해 이달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최강록의 나야' 시리즈 전 품목을 대상으로 2개 이상 구매 시 개당 일정 금액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롯데마트GO'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은품 증정 이벤트도 마련했다.

/안재선 기자

CJ제일제당,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미래 마케터 공모전 등 3개 분야

CJ제일제당이 미래 성장과 해외 사업의 주역이 될 인재 확보에 나선다. CJ제일제당은 19일부터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채용은 글로벌 사업 확대와 MZ세대 눈높이에 맞춰 ▲신입 공채 ▲미래 마케터 공모전(Future Marketer League) ▲글로벌 인재 전형(Global Frontier Internship) 세 분야로 진행한다. 이 중 미래 마케터 공모전과 글로벌 인재 전형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신입 공채는 부문 공통(전사), 식품 사업, 바이오 사업 각 부문별로

5개 직군(R&D·제조 기술·마케팅·영업·경영지원)을 모집한다. 지원서 접수, 테스트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까지 5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미래 사업을 이끌 R&D와 경영지원 직무는 직무 능력 평가를 위해 전문성 프리젠테이션(PT) 면접을 추가로 진행한다.

미래 마케터 공모전은 식품 사업의 제품 마케팅 직무 대상이며, K-푸드를 선도할 다양한 아이디어와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기회다.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인재는 상급 수령과 함께 CJ제일제당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다. 기 희망 접수, 피드백 세션, 본선 PT, 결선 PT, 최종 합격까지 5단계로 이뤄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일동후디스, 어린이 프리미엄 영양음료 출시

'마시는 하이키드 밀크'

일동후디스가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프리미엄 균형 영양 음료 '마시는 하이키드 밀크'를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골드키즈 트렌드가 부상하며 자녀의 영양 밸런스에 관심 갖는 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선보이게 됐다.

'마시는 하이키드 밀크'는 성장기 어린이를 위한 균형영양식 '하이키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음료 라인으로 아이들의 성장 발육과 균형 영양을 동시에 책임진다.

성장기에 필요한 5대 영양소를 고루 담았으며 어린이 영양 섭취 기준을 고려해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비율을 5:

2:3으로 맞춤 설계했다. 특히 일동후디스만의 균형 영양 설계를 통해 비타민 12종과 미네랄 6종을 한 팩으로 고르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성장에 도움을 주는 L-카르니틴, 칼슘 200mg과 필수아미노산 300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두뇌 건강을 위한 밀크세라미드(인지질), 타우린, 이노시톨, 리놀레산, 알파리놀레산 등도 담았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아이들 영양을 챙길 수 있도록 마시는 하이키드를 선보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SSG닷컴 '쓱배송' '쓱 주간배송' 이름 변경 통합 브랜드로 리브랜딩

SSG닷컴이 '쓱배송'을 통합 브랜드로 리브랜딩한다고 18일 밝혔다.

SSG닷컴에 따르면, 기존 자체 당일 배송을 지칭하던 '쓱배송'은 '쓱 주간배송'으로 이름을 바꾼다.

'쓱 주간배송'은 장보기 상품을 지역에 따라 오후 1~2시까지 주문하면 당일 받아볼 수 있는 SSG닷컴 대표 배송 서비스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호남은 물론 제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새벽배송'도 '쓱 새벽배송'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다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새벽배송으로 표시된다.

/안재선 기자

21일부터 '디토파스 디저트 페스티벌'

현대백화점이 이달 21일부터 30일까지 전국 현대백화점 점포에서 '디토파스'와 함께 '디토파스 디저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디토파스는 팝업 및 트렌드 소개 전문 인스타그램 채널이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3월 현대백화점 전체 점포의 70여 개 디저트 및 베이커리 브랜드 상품 기획 개편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적인 신규 입점 브랜드로는 페스츄리 전문점 '롤링엔필링', 생과일 케이크 전문점 '프루트 by 도레도레', 구움과자 전문 '호라이즌16x토스티서울' 등이 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신규 입점 브랜드를 포함, 고객들에게 새로운 디저트를 소개한다. 가장 먼저, 현대백화점과 디



토파스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디저트 루표를 진행한다. 우수한 브랜드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 고객에게 상품 하나를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연다.

이 외에도 현대백화점이 큐레이션한 주요 브랜드를 표시한 디저트 맛집 지도를 인스타그램에 공개하는 등 소셜관계망서비스(SNS) 콘텐츠와 연계하는 고객 참여형 행사도 진행한다. 이달 25일부터 30일까지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는 이번 페스티벌을 주제로 한 오프라인 팝업스토어도 운영한다. /안재선 기자

셀트리온,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주주환원을 40% 목표

(3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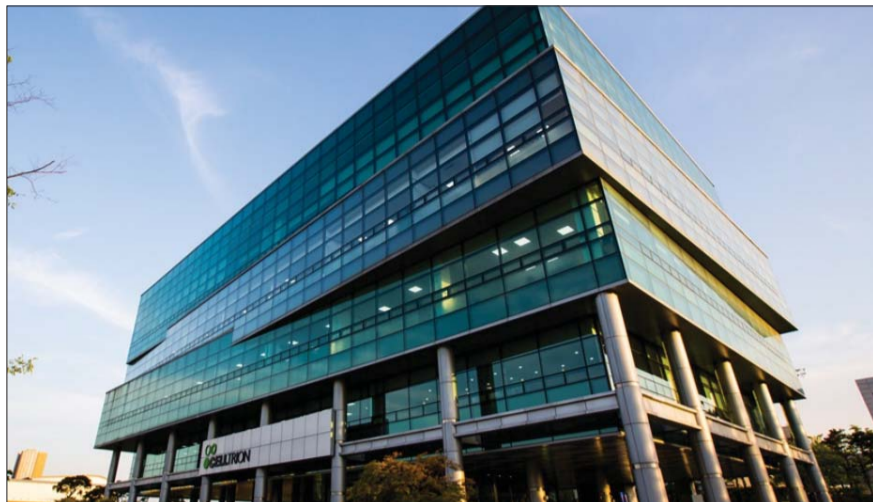
매출성장·수익성 개선 등 골자
2027년까지 연평균 30% 성장
“글로벌 빅파마” 도약 박차

셀트리온이 올해 매출 5조원에 이어 연 평균 30% 성장하고, 평균 주주환원을 40%까지 확대하는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내놨다.

셀트리온은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밸류업 프로그램(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18일 공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2027년까지의 ▲매출성장(연평균 매출액 30% 이상 성장) ▲수익성 개선(자기자본 이익률(ROE) 7% 이상 달성) ▲주주환원(3년간 평균 주주환원을 40% 달성) 목표를 골자로 구성했다.

매출액은 올해 목표 5조원을 달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기존 제품의 안정적인 성장과 신규 제품의 빠른 시장 안착을 통해 매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사무동 전경

특히 올해부터 수익성 개선 효과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2.4% 수준인 자기자본이익률을 7% 이상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셀트리온은 ▲고(高)원가 재고 소진 ▲생산성 개선 ▲3공장 생산 확대 ▲기존제품 개발비 상각 종료 등에 따라 매출원가율(이하 원가율)은 빠르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 직전 63%에 육박하던 원가율은 한 해 만에

45% 수준까지 감소했으며, 올 연말 분기 기준 20%대 진입이 예상된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가율을 낮춰 2027년에는 연평균 20%대까지 개선된 원가율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했던 글로벌 판권과 관련한 약 1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상각이 지난해 마무리된 데다, 올해부터는 외형 성장을 통한 이익 레버리지 효과도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반 성장을 위한 주주환원 계획도 대폭 강화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연결순이익 대비 평균 주주환원을 40%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중장기적으로 이익 대비 30%를 목표로 현금배당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정기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보통주 1주당 현금 750원과 주식 0.05주의 동시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 총 배당금은 전년 대비 약 1.5배 증가한 1,538억원 규모, 배당 주식은 약 1025만주가 될 전망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하고 신규 제품의 성공적인 시장 안착과 순조로운 포트폴리오 확장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회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주주환원을 더욱 극대화하기 위해 밸류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확고한 기업가치 구축과 최고 수준의 주주환원 정책으로 투자자들과 동반 성장하며 ‘글로벌 빅파마 도약’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GC녹십자

큐레보 1.1억 弗 투자 유치

GC녹십자는 미국 관계사 큐레보가 대상포진백신 ‘아메조스바테인’ 개발을 위한 1억10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B 투자 유체에 성공했다고 18일 밝혔다.

투자금은 ‘아메조스바테인’ 임상 2상의 투여 대상 환자군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에 쓰인다. 큐레보는 올해 중순부터 70세 이상의 성인을 포함한 640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임상 3상의 최적 용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자금 조달은 유럽 생명과학 전문 벤처캐피탈(VC) 메디치의 주도로, 오비메드, HBM 헬스케어 인베스터스, 사노피 벤처스 등이 참여했다. 설립 투자자인 GC녹십자를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후속 투자와 다수의 신규 투자가 이뤄졌다.

/이청하 기자

CJ올리브영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

CJ올리브영은 ‘2025년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CJ올리브영은 ▲MD ▲상품개발BM ▲백엔드개발 ▲소프트웨어엔지니어 ▲글로벌마케팅 ▲글로벌사업전략 ▲글로벌영업 등 23개 직무에 걸쳐 두 자릿수 인원을 선발한다. 채용 전체 직무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 가능하며 일부 글로벌 관련 직무는 ‘글로벌 전형’으로도 지원을 받는다.

CJ그룹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지원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은 내달 3일이다.

지원서 접수 이후 서류 전형 합격자들은 TEST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등의 전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경 CJ 그룹에 입사하여 신입사원 입문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CJ CGV-삼성-하만, AI 기반 ‘미래형 영화관’ 만든다

3사 업무협약...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
정종민 대표 “차별화 고객 경험 선사”

CJ CGV가 고객 맞춤형 관람 경험을 제공하는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해 삼성전자, 하만인터내셔널(이하 ‘하만’)과 손을 잡았다.

CJ CGV와 삼성전자, 하만이 ‘AI 시네마 혁신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3사는 스크린, 음향, 공간 등 각 부문에서 적용되는 첨단 기술 및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할 예



왼쪽부터 삼성전자 임성택 한국총괄장,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 하만 아마르 수바시 부사장(왼쪽부터) AI 시네마 혁신을 통한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갖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정이다.

CGV의 상영관 내에 삼성전자의 차세대 시네마 LED 스크린을 도입해

더욱 선명하고 생생한 화질을 만나볼 수 있으며, 하만의 입체 음향 솔루션을 적용해 몰입감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시네마 공조 시스템을 비롯해 영화관의 다양한 공간에 환경 및 설비, 기기들을 통합 제어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고객 맞춤형 솔루션인 ‘스마트싱스’를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마트싱스’를 적용하면 상영관 내 스크린 화면 밝기에 따라 조명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관람객 수에 따라 온도 및 공기청정 기능도 제어할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시네마 LED 스크린은 기존 프로젝터 대비 6배 이상 밝아 영화뿐만 아니라 라이브 콘서트, 다이닝 시네마 등 다

양한 형태의 프리미엄 상영관을 선보일 수 있다.

3사는 미래형 영화관 구축을 위해 협력을 이어 나가며, 향후에는 국내를 넘어 CGV가 진출한 해외 극장으로도 확대 영화산업 내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CJ CGV 정종민 대표이사는 “영화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와 하만인터내셔널의 첨단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영화관은 고객에게 영화 관람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최적화된 공간과 서비스로 차별화된 고객 경험과 가치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최성원 회장, 조직문화 혁신 팔 걷어

(광동제약)

주니어 보드 활동... “창의적 문화 조성”

광동제약 최성원 회장이 직접 이끌고 젊은 직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주니어 보드(Junior Board)’가 활동을 시작한다.

광동제약은 ‘주니어보드’가 최근 17기 활동이 시작됐다고 18일 밝혔다. 광동제약이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니어 보드는 청년 중역 회의다. 대리급 이하 직원들이 색다른 시각으로 조직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한다.

이번 17기는 연구, 마케팅, 영업, IT 등 다양한 직군과 부서에서 선발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향후 1년 등



2025년 주니어 보드 17기 발대식에서 최성원 회장(가운데) 등 광동제약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광동제약

안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최성원 회장은 “직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기업 환경에 대응하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네수파립, 美 FDA ‘희귀의약품’ 승인

온코네티라퓨틱스

‘위암·위식도접합부암’ 지정

제일약품은 신약개발 부문 자회사 온코네티라퓨틱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에 대한 ‘위암 및 위식도접합부암 희귀의약품’ 지정승인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네수파립은 파프-탄키라제 이중저해 표적항암제다. 암세포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파프와 탄키라제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갖췄다. 현재 네수파립을 전이성 췌장암 1차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한 임상 1b/2상, 자중내막암을 적응증으로 한 네수파립과 키트루다의 병용 요법에 대한 임상 2상

등이 진행되고 있다.

네수파립은 기존 파프 저해제 치료에서 내성 문제를 겪는 환자와 기존에는 치료하지 못했던 암종에서 쓰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췌장암을 비롯해 자궁내막암, 난소암 등에서 유방암, 위암 등으로 신규 임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21년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네수파립’은 췌장암 치료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온코네티라퓨틱스 측은 동일한 신약 후보물질이 두 개 암종에서 FDA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네수파립의 우수한 기술력과 약물 효과를 입증한 성과라고 설명했다.

/이청하 기자

LG생활건강 오후

얼티밋 커버 데니어 쿠션

LG생활건강은 오후 ‘얼티밋 커버 데니어 쿠션(샤진)’을 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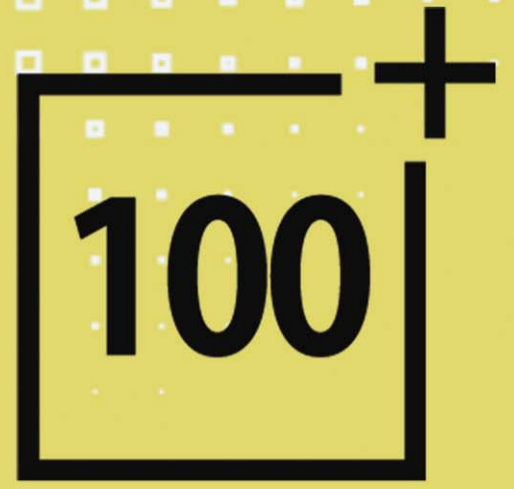


오후 ‘얼티밋 커버 데니어 쿠션’은 피부 탄력을 개선해 주는 성분으로 하이드롤라이드 콜라겐, 수분 케어 성분 레이어링 히알루론산, 진정 케어 성분 블랙 트러플 추출물 등을 함유한다.

이번 신제품은 0.5호 단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21호를 기준으로 19호, 20.5호, 21호, 21.5호, 22.5호 등으로 선택지가 다양해졌다. 아울러 70데니어, 100데니어로 구분하여 피부 고민에 따라 커버 밀도를 맞출 수 있다.

/이청하 기자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

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2025년 3월 25일(화) 오후2시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

● 행사개요

- 행사명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1
 - 주 제 난세(亂世)의 소확재(小確財)-힘든 세상,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 일 시 2025년 3월 25일(화) 14:00~17:10 (VIP 티타임 13:30~14:00)
 - 장 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 등 록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당일 카드결제 가능
 -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 ~ 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 ~ 14:10	〈축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10 ~ 14:50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글로벌 경기와 대한민국 경제 전망
강연	14:50 ~ 15:25	염승환 LS증권 이사 : 미국 주식 여전히 유효한가...증시 전망과 투자전략
	15:25 ~ 16:0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컨설팅팀 : 자산가들의 절세노트 훑쳐보기
	16:00 ~ 16:35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 준비와 작지만 확실한 재테크
	16:35~17:10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내집마련은 언제?...부동산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연사 소개



김영익
-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 서강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 옥스퍼드대학교 그린템플턴 컬리지 수료



염승환
- LS증권 이사
- 경제유튜브채널 <삼프로TV>
- 저서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질문 TOP77>



김동엽
-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본부장
- KBS1라디오 <은퇴설계, 오늘부터> 출연
-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센터장



호지영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
- 前 대신증권 WM추진부
- 前 KPMG 삼정회계법인 컨설팅본부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 소장, 수석부사장
- 저서 <박원갑 박사의 부동산 트렌드 수업>



삼성전자, ISH '디자인플러스 어워드' 2관왕

삼성전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ISH 2025 '디자인플러스 어워드'의 물&효율성 플러스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수상 제품은 200l 전용 물탱크가 탑재된 '슬림핏 클라이머트 모노'와 콤팩트한 사이즈의 벽걸이형 '하이드로 유닛 모노'로 EHS 실내기 2종이다. /삼성전자



예탁원 KSD나눔재단, '마음이음 사업' 2.5억 후원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은 지난 17일 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에서 개최된 '마음이음 공모사업 후원 증서 전달식'에서 공모에 선정된 5개 사업에 총 2억5000만 원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보경 KSD나눔재단 사무국장(왼쪽에서 다섯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NH농협은행, 5230만원 상당 NH포인트 기부

NH농협은행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사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NH포인트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총 5228만4291원의 기부금이 5곳의 자선단체에 전달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최운재 NH농협은행 디지털전략사업부 부회장(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한유원-티알엔,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맞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은 지난 17일 티알엔(쇼핑엔티)와 서울 목동 사옥에서 '중소벤처기업 판로확대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태식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왼쪽)가 티알엔 한상욱 대표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인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소라 △운영지원과장 김연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이은주 △디지털사회기획과장 이정순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이상민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 이주식 △연구예산총괄과장 박상민 △연구성과확산추진과장 최문기
- ◆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도재영 △운영지원과장 김명관 △산림병해충방제과장 김민천 △서부지방산림청장 김영혁

최태원 상의 회장, 'APEC 경제인 행사' 현장 점검

경주 방문... 행사 활성화 방안 논의 참가자 숙소, 만찬장 등 직접 챙겨

대한상회가 오는 10월 경주 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경제인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주를 방문했다.

APEC 경제인 행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7~18일 이틀간 경주를 방문했으며 이번 방문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2025 APEC CEO 서밋 의장)을 비롯해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서울상의 부회장이 동행했다.

지난 17일에는 'APEC CEO 서밋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지자체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안효대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APEC CEO 서밋



오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을 계기로 열리는 '2025 APEC 경제인 행사'를 위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운데)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대한상의

은 아태 지역의 경제 리더들이 모여 미래 성장과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행사"라며 "경주·경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회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APEC 개최

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단기 직접 효과는 3조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1000억원으로 분석, 취업 유발효과는 총 2만2634명으로 예상된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지자체

간담회에 앞서 APEC CEO 서밋 개최 후보지인 경주 예술의 전당을 방문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환담을 나눈 후 예술의 전당 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행사 준비 상황 전반을 점검했다. 또한 참가자 숙소, 환영만찬장, 부대행사 예정지 등도 직접 살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현대차그룹, iF 어워드 석권... '아이오닉 9' 등 26개 수상

글로벌 무대에서 디자인 경쟁력 입증 제품·커뮤니케이션·UI·UX 등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무대에서 제품·브랜드 등 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차그룹은 독일 국제포럼디자인이 주관하는 '2025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26개의 상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4년부터 매년 시장에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프로젝트 중 디자인 차별성과 영향력을 평가해 부문별 최고 디자인을 선정한다.

올해 현대차그룹은 ▲제품 ▲프



2025 iF 디자인 어워드 제품부문 본상 아이오닉 9. /현대자동차

로페셔널 콘셉트 ▲ 커뮤니케이션 ▲ 실내 건축 ▲ 사용자 인터페이스(UI) ▲ 사용자 경험(UX) ▲ 서비스 디자인 등의 부문에서 본상 26개를 받았다.

제품 부문 자동차 카테고리에서는 현대차 아이오닉 9, 디올 뉴 팰리세이드, 이니시움 콘셉트, 기아 EV

3, 제네시스 엑스 그란 베를리네타 콘셉트 등이 본상을 수상했다.

본상 수상작인 아이오닉 9은 전동화 대형 SUV로 물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날렵한 외관과 넓고 아늑한 실내 공간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보트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이다.

디올 뉴 팰리세이드는 강인한 인상을 중심으로 측면부에 과감한 비율을 적용하고, 전면부의 DRL과 그릴에 견고한 디자인을 반영해 웅장한 조형미를 보는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미래지향적 콘셉트 및 선행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페셔널 콘셉트 부문에서는 제네시스 네오론 콘

셉트, 수소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콘셉트 SPACE가 본상을 거머쥐었다.

현대차그룹의 로보틱스 기술 디자인 역량도 수상으로 이어졌다. 제품 부문 산업 카테고리에서 착용 로봇 '엑스블 솔'가 본상을 수상했고 서비스 디자인 부문에서 '전기차 자동 충전 로봇(ACR) 서비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는 현대차 피파(FIFA) 여자 월드컵 캠페인, 디올 뉴 썬타페 론칭북, 자동차 딜러를 위한 AD 크리에이터 등이 본상을 수상해 우수한 브랜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입증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조현상 부회장, 루마니아 투자 '물꼬'

(HS효성)

바르나 탄초스 재무부 장관 회동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바르나 탄초스(Barna Tanczos) 루마니아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을 만나 투자환경 개선을 협의했다.

루마니아는 한국기업과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나라로 최근에는 원전, 방산 업체들이 진출을 모색할 만큼 새로운 투자 유망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팅은 투자 유치를 위해 방한한 바르나 부총리와 루마니아 대표단이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금액이 가장 큰 한국기업인 HS효성에 만남을 제안해 성사되었다.

조 부회장과 바르나 부총리는 미국 통상 정책의 변화로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과 유럽을 비롯해 글



지난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오른쪽)과 바르나 탄초스 루마니아 부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S효성

로벌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루마니아 투자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조 부회장은 "세계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이 개선되면 한국의 다른 기업들도 투자를 고려할 것"이라며 투자 매력도 제고를 제안했다. /이승용 기자

백화점협회, 정지영 신임 회장 선임

(현대백화점 사장)

'더현대 서울' 성공 주역

정지영 현대백화점 사장(사진)이 국내 백화점 산업의 발전과 유통 기업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결성된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의 제 28대 회장을 맡는다.

한국백화점협회는 18일 2025년 정기 총회를 열고 정지영 사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는 2027년 3월까지다.

정 사장은 1991년 현대백화점에 입사한 이후 30여년간 마케팅과 영업 분야에 몸담아 온 마케팅 전략 및 기획 등으로, 지난 2012년 영업전략 담당 임원으로 승진한 이후 울산점장과 영업전략실장, 영업본부장을 거쳐 2024년부터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다.

특히 정 사장은 오프라인 리테일



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더현대서울'의 성공적 안착을 주도한 인물이다. '리테일 테라피(쇼핑을 통한 힐링)'라는 차별화된 공간 혁신과 K패션, K팝, 글로벌 IP 등 현대백화점에서만 만날 수 있는 콘텐츠를 끊임 없이 선보이는 경험의 가치 극대화도 더현대 서울을 글로벌 쇼핑 랜드마크 반열에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협회 관계자는 "정 협회장이 경기 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비전을 제시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중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노인과 바다



김양평의
일본 이야기

어느 여름날 강한 태풍으로 인해 우산도 제대로 쓰기가 어려운 날이었다.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약 30분, 자전거를 타면 10분 정도 거리. 평소에도 비가 오는 날이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기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집을 나섰다. 잠시 후 강한 바람 때문에 우산을 든 손에 힘이 더 들어가서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기가 어렵다고 느끼는 순간, 우산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자전거는 쓰러져 버렸다.

나름 자전거를 잘 탄다고 자부했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다니 참으로 창피했다. 물론 태풍 때문에 길 위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아무도 날 쳐다보고 있지는 않았겠지만, 체면을 구겼다는 생각에 서둘러 수습하기 시작했다. 우산은 바람에 뒤집혀서 몇 바퀴 구른 뒤라 부러진 살들이 앙상하게 보였고 자전거는 넘어지면서 핸들이 돌아가 있었다. 그리고 넘어지면 서 어디에 걸렸는지 바지가 찢어져 있었고

설상가상으로 손바닥은 까여서 피가 나고 있었다. 완전 최악이었다. 나중에 뉴스를 보니 역대급 태풍이었고 전국적으로 그 피해가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며칠 후 TV 속에서 한 노인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는데 그 노인은 조그만 어촌마을에 사는 어부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문득 떠오른 것은 유명한 소설인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말 그대로 바닷가에 사는 노인의 인터뷰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 같은 내용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인터뷰를 보면서 '노인과 바다'를 처음 읽고 느낀 감정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다. 왜냐하면 노인이 인터뷰하게 된 사연이 소설만큼이나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연은 며칠 전 내가 최악으로 기억하게 된 태풍과 연관이 있었다. 인터뷰 당시 노인이 사는 주변 마을의 모든 어선이 그 태풍으로 파손되어 조업할 수 없게 되었는데 유일하게 노인의 어선만 부서지지 않아 혼자만 조업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단순히 운이 좋아 그랬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위력이 강한 태풍 소식이 들리자 대부분 선주는 배를 항구에 피신시켰지만, 그 노인은 오히려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고

했다. 태풍 소식이 들리면 배들은 항구로 피신하는 일반적이다. 그런데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다는 것은 정말로 무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다. 노인은 높은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태풍을 가로지른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만이 배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어처구니가 없는 도전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항구에 정박해 놓은 배들이 모두 피해를 보았고 노인의 배만 무사히 태풍을 이겨낸 것이다.

노인은 주변 항구에서 자기 어선만 유일하게 조업하고 있으니, 수입이 많이 늘었다고 유쾌한 웃음을 보였다. 그런데 자세히 노인의 웃는 모습을 보니 무언가 입안이 어색하게 보였다. 그것은 이빨이 몇 개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어지는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강한 파도를 뚫고 배를 운전하면서 워낙 세계 이를 꼭 깨물어 여러 개의 이빨이 빠졌다는 것이다. 배를 살리고 이빨을 잃은 것이다. 같은 태풍을 경험했는데, 나는 웬지 태풍에 진 기분이었던 노인은 태풍을 이겨낸 영웅과 같았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인 어선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도전을 한 점에 있어서 소설 속에 나오는 노인과 오버랩되어 보이고 있었다.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尹 대통령에 '폭삭 속았어요'



기지수첩
박태홍
(정치경제부)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가 K-컬처의 저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지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폭삭 속은 헛헛한 느낌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딱히 기억남을 만한 것이 없지만, 윤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경제 중심축을 민간과 기업으로 옮겨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을 현재 2%에서 4%까지 끌어올려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4~2026년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국가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어느 하나 결실을 맺은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탄핵 정국 전후 내수와 경기는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자 수는 565만 7000명으로 2021년 이후 3년만에 줄었고 IMF 외환위기였던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를 하향 조정할지 한달 만에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부진, 통상갈등 심화

등으로 경기나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기존 제조업·서비스 강국을 압박하고 있어 경제계의 고민이 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사망자가 589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담당자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며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업 못한 청년 백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경제 침체의 원인을 윤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지을 순 없다.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직을 내걸 모험을 하지 않고 경제 공약 실천에 집중했다면 국민들은 적어도 속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 같다.

/pth7285@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20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라. 48년생 성공이 지척이니 힘내라. 60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있는 법이니 서운해 마라. 72년생 조연도 사람을 봐가며 들어야 한다. 84년생 마음에 드는 투자처가 있어도 자금 주머니를 생각.
- 소** 37년생 모두 자신 탓이니 남을 원망하지 마라. 49년생 건강에 좋은 차를 선물 받는다. 61년생 올라가는 대로 내려버려 두는 것이 좋다. 73년생 불만이 있어도 내색을 말아야 일이 마무리. 85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 호랑이** 38년생 기다림은 길고 만남은 짧다. 50년생 꽃동산에서 여유 있게 노는 날. 6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아는 길도 물어서 가라. 74년생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있다는데. 86년생 길 떠나려는데 신발 끈이 풀리니 잠시 자제.
- 토끼** 39년생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못 심겠는가. 51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남쪽으로 여행을 가보자. 63년생 산책을 하며 주변을 돌아보라. 75년생 종일 우울한 마음을 독서로 달래 본다. 87년생 여러 사람 앞에서 새로운 친구를 조심해야.
- 용** 40년생 有終之美란 말처럼 마무리를 생각해둘 것이다. 52년생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협동과 소통으로. 64년생 꿈이 현실로 나타난다. 76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심란. 88년생 하늘은 공기로 차 있으니 무너질 리 없으니.
- 뱀** 41년생 힘없는 정의는 무력하다고 했으니. 53년생 투자는 선택이 중요하지만, 나이를 생각해야. 65년생 뒤늦게 가정불화로 관세수가 따르다. 77년생 이기적인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89년생 시간은 혼자서 가고 마음대로 멈춘다.
- 말** 42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54년생 주변에 부담은 주지 마라. 66년생 방해가 있다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할 터. 78년생 말에는 각인효과가 있으니 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대로 된다. 90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소식이 온다.
- 양** 43년생 해치려고 하는 자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55년생 새벽에 돼지꿈을 꾸었으니 뜻을 이룬다. 67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평화로운 하루. 79년생 정성껏 기도하면 관재구실을 면해보라. 91년생 유리한 정보를 얻어서 이득을 본다.
- 원숭이** 44년생 자녀에게 목표를 세우고 힘을 기울이자. 56년생 경사가 겹치니 금상첨화. 68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무슨 일든 참여. 80년생 정성으로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된다. 92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어지지 실망할 때가 아니다.
- 닭** 45년생 정의가 힘이 될 수도 없는 현실이다. 57년생 불평 마라 세상 모든 일은 나를 위해 열심히. 69년생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라. 해야 한다. 81년생 부러지더라도 굶지지는 마라. 93년생 실행하기 어렵다고 부부간에 의논도 하지 않는가.
- 개** 46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 하나로 무너지니 매사 조심. 58년생 새로운 계획은 생각을 신중히. 70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경계. 82년생 재미있는 일이라도 배가 불러야 신이 나니 열심히 벌도록. 94년생 태산이 되지 못해도 일단은 모아라.
- 돼지** 47년생 배우자 외 다른 사람과 만남을 주의. 59년생 뒤늦게 이력서 낸 곳에서 소식이 온다. 71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먼저 시작하자. 83년생 조직에서 큰 상을 받으리 날아갈 듯. 95년생 못 믿을 것은 내 마음이지 상대의 마음은 아니다.

김상회의 四季 배려와 존중의 명리학

모든 사람이 서로 다른 사주로 태어난다. 같은 사주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굴의 생김새처럼 모두 다르다. 어떤 사주는 특정한 기운이 넘치고 어떤 사주는 특정한 기운이 부족하다. 운세의 흐름도 사람 따라서 다르다. 사주와 운세가 다르기에 모두 자기의 특성을 갖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사주가 알려주는 인생길의 방향과 운세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들을 바탕으로 또 다른 인생을 개척하는 사람도 있다. 명리학은 이런 다양한 사주를 존중하고 사주의 넘치고 부족함을 배려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한다.

배려와 존중이 명리학의 기본이라고 본다. 명리학은 사주의 어느 부분이 부족하면 보충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 사주의 형상에 따라 운세를 좋게 만들고 기운을 돋워준다. 배려의 정신을 발휘하는 것이다. 명리학은 모든 사주의 형상을 인정한다. 어떤 사주든 타고난 특성 그대로 존중한다. 그 바탕 위에서 더 나은 앞날을 만들어 갈 수도 있도록 이끌어 준다. 현대 사회는 크고 작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립하고 충돌한다. 그 이유는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할 것이다. 상대방의 생각과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이해 못 할 일은 별로 없다.

그런데 상대방의 생각이나 입장은 틀렸다고 무시하지만, 명리학은 사람들과 대립하거나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다. 바탕에 배려와 존중이 있기에 사주학에 담겨 있는 다름과 부족함과 넘침을 존중한다. 그건 사주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존중이다. 또한, 넘침과 부족함을 배려해서 나은 인생길을 찾도록 이끈다.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는 현대 사회에는 이런 명리의 이치가 필요하다. 존중과 배려는 시대를 뛰어넘는 인생의 지혜다. 학문을 주목해 보도록.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안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8	3	9	5
4		5		7
		7	6	
	5			
	2	3	9	
			7	
	1	3		
2			1	8
8	9	7	6	2

	7	1	4	8	
2					
	8	4		9	
2		3			
1	3			2	4
			6		5
4		9	1		
					5
8	3		5	6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니안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2	9	9	7	6	8	8
9	8	8	9	1	6	7	2
6	2	7	8	2	8	1	9
8	9	2	1	8	9	2	6
7	9	1	6	8	2	8	9
8	6	2	7	2	9	9	1
2	1	9	2	6	7	8	8
2	8	8	2	9	1	9	6
9	7	6	8	9	8	2	1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633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737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입학하면 대기업 취업까지 보장 이공계 취업난에 '계약학과' 인기

대기업-대학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13개 대학, 18개 학과 780명 선발
이공계 특성화대, 수시선발 90%
졸업 후 일정기간 기업 근무 의무

과거 문과에 국한됐던 취업난이 이공계로 번지면서 취업이 보장되는 이공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대학과 기업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만들어진 학과로, 주로 첨단 분야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주를 이룬다. 기업이 채용을 보장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대신, 학생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기업에서 근무해야 하는 의무가 따른다.

◆올해 성균관대 계약학과 추가 설립

18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6학년도 첨단분야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선발은 13개 대학, 총 18개 학과에서 실시한다. 총 선발인원은 780명이다. 올해 성균관대에 계약학과가 추가로

2026년 주요 채용형 계약학과

대학	학과	계약기업	인원
고려대	반도체공학과	SK하이닉스	30
	차세대통신학과	삼성전자	30
	스마트모빌리티학부	현대자동차	50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삼성전자	70
	지능형소프트웨어학과	삼성전자	50
	배터리공학과	삼성SDI	30
	정보보호학과	LG유플러스	20
연세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100
	디스플레이융합공학과	LG디스플레이	30
KAIST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삼성전자	100
POSTECH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40
UNIST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	40

설립되면서 전년도보다 1개 모집단위가 늘었다. 성균관대는 지난해 7월 삼성SDI와 '배터리공학과' 설치 협약을 체결해 2026학년도 첫 입학생을 맞는다. 10년간 매년 30명 규모의 신입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고려대는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 차세대통신학과(삼성전자), 스마트모빌리티학부(현대자동차)에서 계약학과 110명을 선발한다. 숭실대는 정

보보호학과 (LG유플러스)에서 20명을, 한양대는 반도체공학과(SK하이닉스)에서 40명을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가장 많아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수시 비중이 높다. 선발인원 총 780명 중 약 600명 가량을 수시로 선발한다.

특히 KAIST 등 이공계 특성화대학들은 90% 가까이를 수시에서 선발한다. POSTECH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는 40명 전원을 수시로 뽑고, UNIST 반도체공학과(삼성전자)는 선발인원 40명 중 35명을 수시로 선발한다.

◆“입학=진로”, 적성 고민 우선해야”

계약학과는 상위권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학과이다 보니 이른바 '입결(입시결과성적대)'과 중원률이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쟁률도 다른 학과들에 비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높은 충원률만 생각하고 무리하게 상향 지원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조언이다. 올해 의대 정원 이슈도 계약학과 입결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난독·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 4개 권역 개소 56개 전문지원기관과 맞춤형교육 '맞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의 본격적인 출범과 함께 56개 전문지원기관과 협력해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4개 권역에서 시범 운영되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지난달 27일 남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지난 17일 강동송파, 성북강북, 중부교육지원청에 차례로 개소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 요인, 난독 및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맞춤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또한, 지역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내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학습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오는 19일 난독 지원 기관 27곳과 경계선 지능 지원

기관 2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각 기관과 협력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난독 및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영역별 전문 진단검사 ▲학습 성장 '온리원(Only One)' 프로그램 ▲교사 및 보호자 상담 등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관내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3월 한달 동안 다층적 기초학력 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합요인이거나 난독,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학생의 경우 학교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에 통합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는 진단 결과를 판독하고 심층 분석한 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각 기관과 협력하여 학습 성장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현진 기자

고양시, 부동산 거래량 증가... 주거용 강세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거래 13.3% ↑ 덕양·일산동구 증가, 일산서구 감소

고양시는 2024년 하반기 부동산 거래량이 상반기 대비 13.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하반기 감소세를 기록한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 시작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 거래량이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고, 상업 및 공업용 부동산, 토지·임야 등은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행정구역별로는 덕양구(9.8%)와 일산동구(24.9%)에서 부동산 거래가 증가한 반면, 일산서구(-8.9%)는 감소세를 기록하며 지역별 차이를 보였다.

덕양구는 전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특히 다세대·연립주택 거래가 28.9% 증가하면서 시장 회복을 주도했다. 또한, 덕양구는 상업·업무용 부동산 및 토지·임야 거래

도 유일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부동산 시장 활황을 유지하고 있다.

일산동구는 전체 3개 구 중 가장 높은 24.9%의 거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아파트 거래량이 35.9% 급증하며 시장을 견인했다. 공업용 부동산 거래량이 41.4% 증가하며 상업·산업 부문에서도 활기를 띠었다.

일산서구는 다른 구와 달리 전반적인 부동산 거래 감소세를 보였다.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거래량은 32.5% 증가하며 일부 회복세를 보였지만, 아파트 거래량은 유일하게 감소했다. 특히, 공업용 부동산 거래는 54.3% 급증하며 일산동구와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고양시의 주택 및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서울시민 5명 중 1명 '손목닥터9988' 쓴다

사업 5년차, 참여자 194만명 넘어 60·70대 참여자, 높은 걸음수 기록
오늘부터 '캘럭시 핏3' 특별할인도

사업 5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손목닥터9988' 참여자가 194만명을 넘어섰다. 서울시민 다섯 중 한 명이 이용 중인 셈이다. 지난 4년간 참여자 누적 걸음 수는 총 3조4373억 보다. 시는 참여자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19일부터 더 많은 시민이 손목닥터 9988로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손목닥터 포인트로 스마트 밴드 '캘럭시 핏3' 구매 할인 기회를 제공한다 고 18일 밝혔다.

5000포인트 이상 보유한 손목닥터 회

원이라면 '캘럭시 핏3'를 특별할인가인 5만5000포인트(소비자가 8만9000원)로 구매할 수 있으며, 무료 배송 혜택도 제공된다. 시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5만대씩 총 10만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난 4년간 '손목닥터9988'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참여자의 누적 걸음 수는 3조4373억 보로, 이는 성인 보폭 기준 약 24억km에 해당한다. 지구 5만 9973바퀴 거리로, 롯데월드타워(555m) 높이의 약 43억 배에 맞먹는 규모다.

연령대별 이용 분석 결과, 지난해 70대 이상 참여자들이 특히 높은 걸음 수를 기록했으며 60대 이상 참여자도 꾸준히 높은 걸음 수를 유지하는 것을 확

실했다.

2년 이상 꾸준히 손목닥터에 참여한 4085명의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2년간 참여자 주간 걸음 수는 2022년 5만 9814보에서 2024년 6만5441보로 9.4% 증가했고, 하루 걸음 수는 같은 기간 9332보에서 9774보로 4.7% 늘었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손목닥터9988을 스마트밴드(캘럭시 핏3) 등과 연계해 생활 속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손목닥터 9988을 걷기뿐 아니라 건강장수센터, 금연클리닉, 당류 저감 등을 아우르는 통합 건강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수수료 낮춘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

서울시,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 나서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 등 혜택 강화

서울시가 공공배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9.8%에 달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2% 이하로 낮춘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를 통해 업소 수수료 부담을 덜

고 온누리상품권 결제 도입과페이백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8일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자치구를 중심으로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공배달 생태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배달+땡겨요'는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소상공인 힘보탬 프

젝트' 일환으로, 낮은 배달 중개수수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민생경제 안정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월 공모를 거쳐 '서울배달플러스(+)' 민간 운영사로 '땡겨요'를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서울배달+땡겨요'의 배달 중개수수료를 2% 이하로 유지하고, 배달 앱 운영사·시범 자치구·소상공인 단체·배달대행사와 협력해 가맹점을 확대하고 소비자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휴전 깨지나...가자지구 광범위 폭격에 수백여명 사망
▲불법 이민자 261명 추방한 트럼프, 엘살바도르에 감사
/사진 뉴스시스

▲유엔 보고관 "북한 주민 45%가 영양실조...식량 불안 지속"
▲중국 관영매체 "미국 달걀값 폭등은 관세 남용의 역효과"

▲영·프 "러시아, 무조건적 휴전으로 평화 의지 증명하라" 푸틴 압박
▲홍콩 기업 파나마 운하 매각에 중국 고위대표단 파견 대응 나서

해돋이 / 06:38
해질녘 / 18:43

오늘의 날씨

3월 19일 (수)
음력 : 2월 20일

-2 ~ 7°C

수도권 날씨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6/7

동두천 -5/8

파주 -6/8

가평 -5/8

서울 -2/7

양평 -3/8

인천 -1/6

수원 -2/6

용인 -2/6

평택 -4/7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K-콘텐츠, 명품관 등
백화점 '리뉴얼'로
경쟁력 강화
L1



Life

셀트리온
밸류업 공개
주주환원율 40%
L2



“눈 검사로 질환 예측… 신기술로 K-바이오 성장 이끌 것”

속깊은 인터뷰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

메디웨일은 2016년 설립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이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는 우리 눈을 통해 치명적인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연구해 왔다. 그 결과, 메디웨일은 세계 최초로 망막 촬영을 통해 1분 안에 심혈관질환 발생을 예측하는 ‘닥터는 CVD’를 개발했다. 닥터는 CVD는 눈 검사만으로 미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다. 심혈관이나 대사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닥터는 CVD는 효과적인 조기 진단 솔루션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의료 현장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다면.

“시력과 건강을 잃는 일을 겪었다. 메디웨일 공동 창업자도 환자와 의사 관계로 처음 만났다. 당시 임형택 교수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과 교수로 진료를 보고 있었고, 그때 저는 녹내장으로 시력을 40% 가까이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순간순간 아프기보다는 시력을 조금씩 잃어 가는 병이고 증상이 없다. 또 비가역적으로 진행돼 회복이 어렵다. 겉으로 보이지 않는 질병을 미리 진단하는 것이 건강관리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깨달았다. 눈뿐 아니라 심장, 간, 신장 등도 각각의 진료과가 구분되고 있다. 호르몬 장애나 당뇨, 혈압, 비만 등 만성 질환에 대해서는 내분비과 진료가 요구된다. 환자 입장에서는 몸에 문제가 나타날 때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미 체내 장기에서는 병이 진행된 다음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치료 개념을 예방 의학으로 확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간단한 ‘눈’ 검사를 상용화하는 기술이 갖춰진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눈은 다른 질환들의 선형 징후를 반영하는 중요한 장기라는 점이다. 눈에는 말초혈관이 많이 분포해 있다. 예를 들면, 망막에 있는 작은 혈관들은 시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 말초혈관이 손상되면 다양한 병리적인 변화가 생긴다. 이는 혈관의 구조적 특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혈관은 작은 혈관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대혈관으로 확장되면서 형성된다. 반대로 질환이 발생할 때는 주로 말초혈관부터 영향을 받는다.

실제로 당뇨 조절을 위해 내원한 60대 남성 환자가 닥터는 CVD 검사 결과 고위험군 판정을 받아 추가적인 심장 검사를 진행했고, 심근경색 의심 소견이 발견되어 심장내과로 전원한 사례도 있다.”



최태근 메디웨일 대표가 서울 강남구 메디웨일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6년 의료기기 인공지능 기업 설립 망막촬영으로 심혈관질환 발생 예측 눈에 있는 말초혈관으로 건강 파악해 1분 만에 안전하고 편안한 검사 ‘강점’

-그렇다면 기존 의학적 진단 방법과 인공지능은 어떻게 결합됐나.

“질병 징후가 망막 혈관 손상에 의해서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망막 사진으로 확인한 수치들을 여러 변수로 혼합 적용해 전반적인 위험도를 예측하는 방식이다. 닥터는 CVD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약 160만 장의 다양한 망막 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됐다.

그 결과, 닥터는 CVD는 기존 심장 내과의 가장 정확한 예측 검사인 심장 CT와 동등한 정확도를 구현하고 있다. 심장 CT 기반의 관상동맥 석회화지수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예측 성능을 입증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기술과 다양한 의료 현장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의료 방식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 기술들이 어떻게 입증되고 개선되어 왔는지를 면밀하게 이해하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최 대표는 닥터는 CVD 만의 강점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검사 방법을 꼽았다. 짧은 검사만으로 무증상 환자들도 질환을 놓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의료진들과의 협업도 이미 활발한 상황이다.

-닥터는 CVD만의 차별점은.

“두 눈을 촬영하기만 하면 되는 안전한 검사 방법, 5분 내에 결과지를 출력할 수 있는 편의성, 여러 번 반복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점 등이 닥터는 CVD의 특징점이다.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한 만성 질환 환자에서 복잡한 추가 검사 없이 합병증에 해당하는 질환 관련 위험도를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등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무증상 질환에 노출된 환자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다. 최종 의사 결정은 전문가인 의사에게 있다. 의료진의 약제 처방, 약물 증량 등을 결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의료진과의 협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의학적, 임상적 유의미한 사례를 검증할 수 있는 병원들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을 포함한 57개 국내 의료기관에 도입되어 주로 당뇨병, 고혈압 등 대사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의학 저널 등에도 연구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메디웨일은 지난해 11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미국심장협회(AHA) 연례 학술대회에서 닥터는 CVD의 연구 초록 3편을 발표했다. 해당 연구들은 한국, 영국, 스페인 인종의 방대한 망막 이미지를 활용해 진행됐다. 3편의 연구 초록을 통해 메디웨일은 닥터는 CVD가 심장 CT로 측정된 관상동맥 석회화 지수를 다양한 인종에서도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닥터는 CVD는 심장질환 그 자체를 넘어 합병증도 정조준한다. 만성콩팥병 환자에서도 심혈관질환 위험을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다. 이에 대해 메디웨일은 지난해 미국 신장학회(ASN) 연례 학술대회에서 공유하기도 했다.

올해 들어서, 망막 이미지에서 측정된 생체 나이로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음을 입증한 연구 논문을 임상 및 실험 안과학 학술지에 게재했다.

세브란스병원 등 57개 의료기관 도입 심장질환 넘어 합병증 예측도 증명해 美 식품의약국서 ‘드 노보’ 승인 앞뒤 국내서 시작된 신기술, 널리 알려지길

메디웨일은 연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닥터는 CVD의 ‘드 노보’ 승인 획득을 완료하고 이르면 오는 2026년 미국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미국 FDA의 드 노보 승인은 새로운 헬스케어 기술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초 승인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진출도 활발한 상황인가.

“미국, 유럽 등 세계적 수준의 의료 시장을 비롯해 중동 등 신흥 제약 국가 진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각국의 의료 현장과 제도가 다양한데, 닥터는 CVD는 여러 상황에 도입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 국내보다는 외국에서 전문 클리닉이 더 활발하게 운영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당뇨 전문 케어가 있다. 심장내과, 내분비내과, 가정의학과 등 각 분야 의사도 있고, 식단 코칭, 운동 코칭 등등의 전문가가 협업한다. 의료진과의 접점을 늘리는 보수적인 관점보다 폭넓은 선택지를 고려해 메디웨일 입지를 넓히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메디웨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의료 기술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료라는 것은 환자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기술은 급변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제도 등 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메디웨일이 K제약·바이오 성장을 가져오도록 하겠다.”

/이정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돌아온 뮤지컬 ‘조선 이야기꾼 전기수’…6월 7일 개막
▲홍명보의 ‘똥똥 비탄’…현지 매체도 조명 “김민재로 갈등”
/사진 뉴스시스

▲한국 최초 ‘천리포수목원’…조성 기록, 문화유산으로
▲예술감독들 “국악원장에 고위공무원 알박기 반대”

▲‘종목 퇴출 위기’ 복싱, 2028 LA 올림픽 잔류할 듯
▲샌디에이고 다르빗슈, 피로 누적으로 훈련 중단…개막전 합류 불투명

LG와 함께할 가슴 뛰는 미래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일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소중한 시간을 보다 즐겁고 의미 있게 쓰는 미래

고객의 시간 가치를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